

성경에 나타난 언약의 이해

- Encountering Biblical Theology and Covenant -



전화령

ITCS

성경에 나타난 언약의 이해

성경에 나타난 언약의 이해

목차

1. 목적
2. 방법:
 - 1) 보스의 성경신학
 - 2) 클라인의 왕국의 서론
 - 3) 청교도신학자 오웬의 성경신학
 - 4) 언약의 전통적 견해
3. 내용
 1. 서론
 2. 성경신학과 언약
 3. 언약과 하나님의 형상회복
 4. 언약에 대한 역사적 이해 과정
 5. 언약의 개관
 6. 언약의 분류
 - 1) 구속언약

- 2) 창조언약
- 3) 행위언약
- 4) 은혜언약
- (1) 천상회의의 구속언약 - 은혜언약의 원형
- (2) 창세기 3:15 절의 은혜언약
- (3) 노아의 은혜언약 (자연언약)
- (4)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은혜언약
- (5) 모세에게 주어진 은혜언약
- (6) 다윗에게 주어진 은혜언약
- (7) 새언약
 - a. 구약 속에 나타난 새언약
 - b. 신약 속에 성취된 새언약
 - c. 바울신학 안의 새언약의 특징
 - d. 요한신학 속에 나타난 새언약의 특징
 - e. 히브리서신에 나온 새언약의 특징
- (8) 언약의 절정 - 임마누엘 - 연합된 경건공동체

7. 결론

부록# 1 구속과 언약과 신형상회복 다이어그램과 해설

부록# 2 성경언약의 비교표

부록# 3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의 흐름

성경에 나타난 언약의 이해

1. 들어가는 말:

1) 동기: 필자는 13년간 캄보디아 교육 선교사로 캄보디아국제신학대학 대학원을 섬기면서 구약신학을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과목들을 가르치며 성경신학과 언약신학 그리고 클라인의 신학을 가르치는 기회를 가졌다. 그 후 평소 표현하고 싶어하는 필자의 신학적 입장을 “하나님 형상 회복의 신학과 신앙”이란 주제를 캄보디아 신학교와 목회자들에게 제시하였다. 거기에 맞춘 후속으로 나의 이해와 연결시켜 개혁신학의 정수인 언약에 관해 다루고 싶은 욕망이 생겨 본서를 쓰기 시작했다.

2) 나의 두 과목의 가르침은 신학교 시절에 늘 생각하던 게르하르트 보스의 성경 신학을 좋아하여 읽고 요약하며 성경의 구속의 흐름을 바라보고 큰 보화를 안은 즐거움이 근간이 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자의 가난한 신학생 시절, 보스의 책을 서점에서 구입하여 틈틈히 보아 오던 책의 진가를 날이 갈 수록 귀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의 인도로 한 미국 서점에서 접한 우리 시대의 구약의 거장, 엠지 클라인의 책, “성령의 영광의 형상”을 대하고 더 큰 확신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보스의 성경신학을 잘 이해하고 그 위에 새로운 구약 세계의 지평을 열어준 인물이다. 그를 좋아 할 수 밖에

없던 것은 그의 언약에 관한 깨달음이 구약 분야에 나타난 개혁주의 신앙에 발전적인 세계를 필자에게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1) 혹자가 전통적인 언약 흐름에 따라 비판적 시각으로 그를 다룬다 할지라도 그가 창세기 1-3 장에서 성경 전체의 언약의 흐름을 증거하는 깨달음은 신학적으로 놀라운 언약 세계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보스가 정의한 계시로서의 성경해석을 자신의 깨달음의 원리로 받아들여 구약으로 펼쳐지는 구속사의 흐름을 그의 주저인 왕국의 서곡이란 책에서 충실하게 표현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그만큼 충실했기 때문이다. 획일적인 비판의 소리보다 조용히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가 발견한 언약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고 감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설교학 전공자로 강해설교를 사랑하여 성경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평소 성경신학을 사랑한 마음으로 하나님 형상 회복의 관점에서 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언약신학이 오늘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대안임을 확신하는데 이르렀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개혁주의를 상아탑아래 가두어 두고 혼자 좋아하는 자리에 안주하려는 하이퍼 칼빈주의의 위험을 극복하며 현실의 당면한 모든 문제를 언약적 흐름 속에서 검토하여 언약의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회복을 추구하고 적용하는 일에 격려하려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더욱 용기를 내게 되었다.

이미 발행한 “하나님의 형상회복의 신학과 신앙”에서 언급하였듯이 언약신학의 절정인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사랑과 복종 관계가 우리가 나갈 길임을 확인시키고 이 세대의 교회가 그 방향을 향해 가야만 한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더욱이 캄보디아라는 선교 현장에서 교회의 장래의 기초를 이 언약신학 위에 굳게 세워지는 것을 꿈꾸며 그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다.

본래 필자가 몸담고 있는 ITCS 는 캄보디아를 위시한 동남아시아권에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심는 것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불교가 99 퍼센트인 1500 만의 인구 속에 개혁주의 신앙을 세우는 노력은 넘어야 할 장벽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면서도 그런 일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요구하는 바이고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기 때문이다.

2008 년도 시작한 ITCS 는 본래 같이 하려던 미주한인 장로교 총회 남가주 노회의 소수의 목사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공산정권이 자리잡은 킬링필드 지역의 하나인 캄보디아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목적으로 이미 캄보디아에 자리잡은 한 장로교단의 협력으로 시작하려던 것을 개혁주의 가르침에 대한 혼합을 염려하고 별도로 시작한 학교가 캄보디아국제신학대학대학원 (ITCS)이다. 그 학교의 목표는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선교 그리고 바른 생활에 표어를 걸고 10 여년을 지켜왔다. 후에 학사행정 이유로 뜻을 달라하여 개혁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다른 신학교를 세우게 되었다. 그리고 보면

미국 KAPC 남가주 노회 목사들에 의해 세워진 개혁주의 신학교가 셋이나 된다고 볼 수 있다. 그 본산인 ITCS는 개혁주의 노선을 따르며 캄보디아에 그 신앙이 정착하기를 바라는 목표로 계속 주의 지상 명령을 섬기고 있다.

더욱이 캄보디아 목사 배출을 목적으로 CBPCP 독노회를 세우고 현재 30 여명 회원이 이 목표를 향하여 나가고 있다. 이런 일련의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중, 새로운 시작을 위해 영입된 교수진들이 미국의 웨스트민스트 신학교, 한국의 합동신학교 그리고 총신 대학대학원 출신 교수들로 구성되어 후학들을 육성시키고 있다.

이 때 필자가 관찰한 것은 불교 문화권 속에 빠속 깊이 감염된 불교의 사상과 문화 생활 태도는 돈바람에 약하고 가정 생활에 불건전성과 경제 발전에 의한 기회주의적 태도가 개혁주의적 신앙을 동경하는 무대를 만들어 놓았다. 이 때 1000 여명 선교사들의 추구하는 바가 예측 못하는 정황에서 복음주의를 심는 것으로 만족하려는 추세는 후세 교회를 향해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캄보디아 선교현장에 언약 신학의 정착이어야 한다. 그 때 교회는 현실의 문제를 치료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곧, 언약 신앙이 캄보디아 교회에 필요한가? 그 대답을 필자가 이해한 개혁주의 곧, 성경이 보여주는 언약신앙의 그림을 볼 때 잘 이해할 것이라고 믿는다.

2. 목적: 성경신학과 언약의 흐름을 하나님 형상회복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세상을 행하여 심도있는 복음 증거와 함께 생활까지 정상적인 언약백성의 삶을 정착시키려는데 목적을 둔다.

3. 방법: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필자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교회 역사상 개혁주의 신학의 근간이 보스의 성경신학과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의 언약사상 그리고 구약신학의 독특한 학자인 엠지 클라인의 창조언약을 분석 비교하고 필자의 확신인 하나님의 형상회복의 세계를 보여 주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은혜언약이란 관점에서 성경역사 속에 나타난 언약의 흐름에 증명할 것이고 그 이후 언약 사상의 절정인 하나님의 형상회복인 복종과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 어디서나 하나님의 의(righteousness)가 들어나고, 인(mercy)이 들어나고, 그리고 신(faithfulness)이 지배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종착지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래 4 가지 언약 신학에 대한 흐름을 서로 비교하여 검토하여 언약에 관한 당대의 쟁점이 은혜 언약임을 확인하고 그 주제를 길게 살피게 될 것이다.

필자의 언약 흐름은 다음 서적을 참조했음을 밝힌다.

- 1) 보스의 성경신학 - 필자는 보스의 성경신학을 기본틀로 성경 읽기를 좋아한다. 그는 성경을 어떤 과학서 이상의 구조를 알고 구속적 계시의 흐름을 본다. 그는 전통적인 언약의 흐름을 존중하면서도 그 증거를 계시의 유기적 이해 속에서 다룬다. 그에게 구속사는 언약사이다. 개혁주의의 본산인 웨스트민스트 신학교의 성경해석의 흐름은 그 영향이 독보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2) 클라인의 왕국의 서론 - 동시에 클라인의 왕국서론은 언약적 관점에서의 이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창조 언약을 기본으로 성경의 구속사를 설명한다. 필자는 보스의 성경신학의 흐름을 계승하면서 거기에서 자신의 성경이해를 접하고 창조 속에서 그 언약을 관찰한다.
- 3) 청교도 신학자 오웬의 성경신학 - 청교도 신학의 근간을 이룬 신학자 오웬의 성경 신학은 성경의 귀납법적 목상을 통하여 언약의 주제로 끌고오는 것이 특징이다. 그의 신학은 적용을 강조한다.
- 4) 언약의 전통적 견해 - 칼빈을 위시한 개혁주의자 신학자의 언약의 이해를 기본으로 하나 필자는 하나님의 형상회복을 언약의 절정으로 보고 언약 백성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2 본론:

먼저 언약을 이해하기 위하여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1) 성경신학과 언약관계

성경신학은 특별계시의 흐름을 연구하는 구속사를 다룬다. 언약은 특별계시의 흐름의 주체가 되는 용어이다. 그래서 구속과 언약과의 밀접한 관계를 이해할 때 우리는 성경신학 속의 주체가 언약임을 알게 된다. 구속사는 언약사이다. 언약의 관점이 구속의 관점이고 구속의 관점이 언약의 관점이다. 두 용어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2) 언약과 하나님의 형상회복

이렇게 좋은 세계를 보고 혼자만 알고 구태의연한 자세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일어나야한다는 것이 필자의 고민이었는데 어떻게 무엇을 할지를 몰랐다. 그 이유는 이것이 너무 광범위한 영역을 포용하고 이것이 모든 것의 근원적인 주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다 하나님의 형상회복이란 주제를 가진 것은 실천적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시대적 요구 때문이었다. 그 때 사람들은 카리스마 운동이나 가벼운 복음주의 운동으로 나가며 나아가 아주 이 복된 오빌의 금을 진토에 던져버리는 것 같은 흐름을 알게되었다. 복음을 제대로 받지 못한 캄보디아 교회는 그 위험이 항상 노출되어있다. 그래서

필자는 아래 그림이 구속사의 중심이 언약이라면 언약의 흐름 속에 그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회복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형상인 의인신을 모든 영역에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구속 계시(언약의 토양) - 언약 - 하나님의 형상(언약의 핵) - 사랑과 복종 (언약의 기둥) - 의인신(언약의 꽃과 열매)

3) 언약의 개관

보스는 언약에 대한 역사적 과정을 단계로 설명한다.

1) **구속언약**- 구속언약은 성부와 성자 간에 맺은 언약으로 그 주제는 자기 백성 에 대한 구속으로 모든 언약의 기초가 된다. 이 말은 역사상에 나타난 언약들이 모두 이 구속과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라고 풀어나가야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노아의 언약도 일반은총과의 언약을 맺는다고 하지만 그전에 구속하심을 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인간 지상주의로 살라는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 언약이라고 일컬리는 노아 언약에도 무지개를 중심으로 구속을 염두에 둔 것임을 간간히 시사하고 잇는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언약을 은혜언약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구속이 없는 그 어떤 언약도 인본주의이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2) **창조언약**- 창조언약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타락전 아담과 맺은 언약으로서 순종으로 영생의 인류가 되고, 불순종으로 영벌의 인류가 되는 기준을 제시한다. 이 언약으로 인류는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을 이루는 완전한 생명에 이를 수 있을 뻔 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5 장에서 창조 속에 구속을 전제로 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발견한다. 창조시에 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의 완성 때까지 계속 일하심을 보았고 신약의 완전한 구속의 그림인 로마서 8 장에서 성령이 그의 백성 한 사람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창조를 이루심을 보게된다.

3) **행위언약**- 이 구속을 이루기 위한 한 과정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거룩에 이르는 자리에 끌어올려야만하셨다. 그래서 첫사람이 타락하기 전 그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시험의 과정을 지나게 하셨다. 이것이 처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동산의 모든 것을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을 보지도 만지도 먹지도 말라는 것이다. 그 한 계명의 무게는 온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시험이었다. 순종하면 영생의 인류 그러나 불순종하면 저주의 인류가 되는 시험의 과정을 지

나게하는 언약이 행위언약이다. 그러나 이런 중대한 일에 그 어떤 긴장을 주거나 반복해서 주지시키는 과정을 자세하 언급함도 없이 인류의 머리인 아담은 단지 불순종함으로서 단 한번 죄를 범함으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사망이 찾아왔다. 다시말하면 그는 행위언약의 실패자가 되었다. 성부와 타락 전 아담과의 행위 언약은 참아담이신 그리스도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셨으나 그는 그 영단번에 순종하심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은 종말시대에 되어질 일이었기에 하나님은 여러 상징주의를 통하여 미리 알리심을 기뻐하셨다. 그리스도 탄생의 때에 천군천사들의 찬양소리를 미리 내다보시고 온 하늘세계가 주목해야하는 언약을 반복, 점진적으로 자기 백성에게 계시하셨다. 그래서 이 행위언약의 회복은 모세 때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표준으로 주어졌지만 그 시험을 통과한 자란 아무도 없었다.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야 다시 요구 되어 그의 순종으로 행위언약의 완성자가 되어 하나님과의 깨어진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를 믿는 자만이 그 안에서 행위언약의 완성자가 되도록 길을 열어주신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위언약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 그들은 아담이 누리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된 것이다.

4) **은혜언약** - 구속사에 나타난 행위언약의 실패에서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얼마의 무리를 선택하여 은혜언약을 맺기를 원하셨다. 이것은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자 안에서 자기 백성 간에 맺는 언약으로 구속 언약의 경륜을 최초로 나타내신 언약이다. 창 3:15 절에는 어떻게 은혜로 구원하실런지 그 요소들을 미리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치시는 구속이기에 은혜이고, 인간의 노력이 전혀 가미되지 않는 구원이기에 은혜이고, 여인의 후손의 중보를 통하여 그만을 믿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기에 은혜이다. 사실 이 은혜의 요소는 벌써 창조의 상징주의를 통하여 암시한 요소였다. 첫째날 빛을 만드심으로 근원이신 분 하나님으로만 이 구속을 이루심을 보여주셨고 둘째 날에 궁창을 두어 위 아래의 물을 분리시킴과 물을 한곳으로 모이게 하시는 연합시키심, 나아가 물 속에서 땅을 끌어올리듯이 절대 사망에서 절대 생명을 끌어내시는 구원의 실체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그 안식을 주심과 에덴에 찾아오신 심판의 주님의 모습은 모든 은혜언약의 성격을 암시한 상징주의들이다. 완성된 은혜 언약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 그 원리가 그대로 나타나 구속이란 분리와 연합임을 나타내셨고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내는 사건임을 보이셨다. 이 은혜언약은 여러 과정을 통하여 계속 보여주신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오심을 새 언약으로 완성하신 것이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의 언약이 모두 이 은혜 언약의 성격을 가짐으로 그 시대마다 나타나다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 와서 새 언약이런 명칭으로 나타내시었다, 그런 의미에서 세 선지자는 새 언약의 영광을 미리 보았기에 큰 자들이었다.

5) **새언약** - 은혜 언약의 완성인 새언약은 은혜언약의 특성을 알리는 용어이다. 다시 말하면 본래의 구속언약의 기초에서 은혜언약의 객관적 구원이 성취되고 나아가 구체적인 은혜의 구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법을 심고, 완전한 신인 연합으로 완성이 되어 마침내 하나님 성품으로 회복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언약 곧 완성된 은혜언약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완성되고 그 증거가 무엇인가를 고찰함으로 본래의 구속이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성취되는 그림을 알게되고 그 복된 언약의 절정에 내가 이미 들어와 있고 계속 들어가려는 과정을 통하여 마침내 우리의 완전한 생명의 언약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되는 필그림의 과정을 보게 될 것이다. 은혜 언약의 높은 전망대에 올라 아래에 흐르는 언약의 발원지에서 구속의 대양으로 어떻게 굽이 굽이 흘러가는 지를 관망함으로서 성경적 언약을 이해하려한다. 필자는 아래 4 장에 걸쳐 정리한다.

제 1 장 언약의 토양 - 구속계시

제 2 장 언약의 씨앗 - 하나님의 형상

제 3 장 언약의 두 줄기 - 사랑과 복종

제 4 장 언약의 꽃과 열매 - 의인신 (하나님의 충만한 성품)

제 1 장 언약의 토양- 구속계시

1. 구속의 수단인 은혜언약

언약을 논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는 두드러진 언약의 개념을 소개하며 성경적 증거들을 살펴보면서 구속에 초점을 맞춘 은혜언약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보았고 이제 우리는 그것에만 중점을 두고 성경에 나타난 은혜언약의 풍성한 복을 살피게 되었다.

그러자면 우리는 이 언약의 원천인 구속이 어디서 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살피고 그 구속이 첫 창조 때에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밝히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발전되었는가를 고찰하여 원시복음인 창 3:15 절과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의 배려와 에덴동산에 화염검을 두어 언약 파괴자들을 쫓아내시는 과정에서, 우리는 구속의 은혜가 은혜언약의 형태로 나타는 것을 볼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지만 구속자이시고 하나님의 창조는 재창조를 염두에 둔 구속의 배경에서 펼쳐진다. 성경은 구속의 흐름이다. 빠르트가 말하는 초역사의 구속이 아니고 인간의 역사적 사건 속에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뜻대로 자기 백성의 구속을 보여주는 사실적 역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하면, 언약의 토양 속에 심겨진 구속의 씨앗으로 이해해야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속의 토양에 은혜언약의 씨를 어떻게 심으셨는가?
그리고 그 은혜 언약은 어떻게 받아하여, 어떤 과정을 걸쳐 성장하
고, 마침내 어떤 구속의 꽃과 열매를 나타내었는가?

1) 천상회의가 보인 은혜 언약의 원형

요한복음 17:1-3 절에 나온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 속에서 성
자는 성부와와의 창세 전에 가진 관계를 언급하면서 현재의 구속이 그
때의 영원한 경륜(결정)으로 된 일이지, 새로운 돌발적인 내용이 아
님을 분명히 함으로서 우리의 관심을 창세전의 천상 회의 사건의
결정으로 돌린다. 이것에 관한 자세한 언급이 성경에 없더라도
이미 만물 창조, 인간 창조, 바벨탑의 심판, 홍해에서의 애굽 심판이
모두 그 범주에 속한 것임을 전제로 한다. 언약이란 말 자체가 창세
기 15 장에 처음 나타남은 그 이전에 언약의 흐름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씨앗처럼 점점 자라 오던 것이 때가 되어 그 용어와 함께 더
구체적인 언약적 규범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말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구속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신 역사적 사건을 발견하고 구속
을 전제로 붙여진 용어인 것 처럼 보인다.

천상회의에서 구속 언약을 암시한 다음 구절에서 그 실체를 발견한
다.

(1) 하나님과 여호와의 호칭- 창세기를 읽다보면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속주 호칭을 통해 이해한다. 엘로힘은 창조주를 강조한 호칭이라면 여호와는 구속주를 강조한 이름이다. 이 용어가 출애굽기에 와서 합성하여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란 호칭으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됨은 한 창조주와 구속주는 하나임을 증거한다. 더욱이 여호와란 호칭은 언약 백성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여호와에 속하심을 책임지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보통 여호와가 주로 표현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주에 해당되는 용어이다. 그래서 예수는 여호와 예수이시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의 신 혹은, 능력, 바람 등의 상징 용어로 많이 나타난다. 이런 용어가 모두 창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천상회의를 암시한다.

(2) 인간 창조자 하나님의 복수 호칭과 권고형 (창 1:26-27) - 이것은 “우리가” 라는 표현이 “... 하자”라는 결정을 알리는 것으로 회의의 결과를 생각해 한다. 한 위만의 사역이 아니라 삼위가 모두 그 일을 행하신 천상회의를 보인다.

바벨탑의 심판 역시 그 점을 돋보인다. 구속을 이루는 과정에 그것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염두에 두고 그런 활동을 정죄하고 자신의 결정을 이루려고 우리가 내려가서 무엇을 하자고 하는 것은 천상회의의 영원한 교통을 통해 의제가 수렴된 내용임을 암시한다. 구원의 긍정적인 면과 심판의 부정적인 면을 전제로 하고

행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창세전 천상회의 결정으로 된 구속 언약임을 보여준다.

(3) 그 외에도 욥기 1 장에서 우리는 욥이 당하는 섭리적 시험이 우연히 생겨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상회의 결정으로 된 것을 암시함을 본다. (욥 1:6-12) 여호와 하나님 앞에 천사들과 함께 선 사탄에게 지상의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일연의 과정을 묘사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 성자와 성령의 호칭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 호칭에 삼위일체의 역사를 그려냄은 욥의 고난 속에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며(욥 16:18-22) 만물의 운행속에 성령이 친히 일하심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욥 31:1-13, 33:4) 이 천상회의 결정으로, 아브라함 시대와 동등시대로 추정하는 욥을 중심하여 한 하나님께서 욥의 섭리적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구속을 이루셨음을 언약의 형태로 이루기를 기뻐하셨음을 암시해 준다. (욥 1:11-12)

그 후 우리는 그 천상회의가 스가랴 선지자의 일곱 이상의 중심 주제로 나타난 네째 이상,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기름부음 받음을 받는 장면에서 속죄 곧, 죄 씻음이 천상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며 그 후에 하나님은 평화의 의논으로 그 언약의 절정을 이룸을 암시했다.(슌 4:6,13)

그리고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인간의 방법으로 저항하는 베드로에게 검을 집에 꽂으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마 26:52-53)라고 하심은 천사를 보내시는 결정권이 천상회의를 통하여 이루 어짐을 암시한다. 주님은 언약 성취를 위하여 자신의 주권을 성부의 권한에 두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성자의 대제사장적 기도인 요한복음 17 장에서는 성자는 성부의 하라는 것만 다 했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시긴 것이 하나도 없고 주장하심은 언약 성취를 의도적으로 겨냥한 것임을 주장하신 것이다.

또한, 고별설교에서도 성령을 성부께 부탁하여 자기 백성에게 친히 보내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대로 시행하심은 천상회의의 결정된 내용이 그대로 진행됨을 보여준다.

그 외에도 십자가 상에 달리신 때도 그리스도가 성경을 이루시려고 애를 쓰신 증거, “내가 목마르다”(요 19:28)고 절규하심은 언약의 성취를 생각하심이었고, 운명 직전에 “다 이루었다”(눅 23:46)는 선언은 이미 예상한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준비된 사항을 자신의 죽음으로 완전히 성취했다는 사실을 알리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계시의 총화를 보이는 요한계시록의 4-5 장에 보인 천상구도 속에 보좌 앞에 서신 어린양을 중심한 천상회의의 모습과 구속을 상징하는 일곱인들을 뿔 때마다 지상 위에 이미 준비된 심판이 그대로 임하는 것은 모두 창세전 삼위일체의 천상회의의 결정대로 성취됨을 보여준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영적 지도자들은 천상회의의 결정이 구속임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그의 뜻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것을 생활의 목표로 두었음을 증거한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기도할 때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것으로 표현했다. (렘 23:18)

창세전의 천상회의 결정의 주제인 구속 언약은 모든 언약의 기본이 된다. 그 말은 구속과 구속사가 언약 활동의 기본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언약의 특징인 구속이란 무엇인가? 구속은 구원이란 다른 용어로서 하나님 백성의 죄로부터의 영원한 구출과 그 이후, 그와 더불어 사는 임마누엘을 포함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상회의 결정으로 된 구속이 은혜 언약의 원형으로 보아야 한다.

2) 성령의 운행을 통한 언약의 세계

앞서 말한 증거를 통해 우리는 창 1:1-3 절에서 삼위 하나님의 창조가 천상회의의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클라인은 이것을 통해 창조과정 자체가 언약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 창조 언약으로 모든 것이 시작됨을 주장한다. 이것은 언약의 원형인 구속 언약의 복사판을 이루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창 1:2 절에 “여호와와 그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에 나오는 성령의 사랑의 운행이 구속 언약이 완성하기까지 시작하고 진행되는 과정을 요약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언약의 절정은 오직 성령의 열매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클라인은 성령의 영광이 곧 언약의 영광이고 구속의 영광으로 표현한다. 구속의 언약은 은혜언약의 원형이기 때문이다. 성부만이 이루는 구속은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성취와 성령의 적용하심으로 교회에 놀라운 선물로 임한 것이다.

은혜 언약의 원리로서 천상회의의 구속은 지금 그리스도가 구속을 완성하신 후 그리스도인 곧 교회 안에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야 할 사건이다. 그래서 교회는 구속의 은혜를 받고 그 풍성한 복을 누리 고 그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인 하나님의 모든 성품으로 채워진 세계를 이루기를 고대하기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노라”로 기원했다. 요약하면, 세상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함이 교회가 가질 궁극적 목적인 것을 분명히 했다.

3)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창조

창 1:26-27 절에 우리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 때도 언약을 기본으로 함을 본다. 그 은혜언약의 원형이 최초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실 때 일어난 것이다. 그 형상을 다른 말로 은혜의 사람, 구속의 사람으로 사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구속이란 말이 타락에서 건짐받음을 전제로 한 것이나 타락전의 인간에게 붙이기는 어려워도 그 내용은 은혜의 내용과 같은 것이지 별개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추구하나 통일성 안에 다양성을 조화롭게 보여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진 창조의 원형이 은혜의 언약 안의 구속임을 인정한다.

4) 에덴동산은 언약 절정의 최초의 그림이다.

창세기 1-3 장에는 에덴동산에서 언약관계로 이루어진 내용이 언급되지 않고 단지 상징이나 모형으로 제시되었다. 훗날 동일한 성령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육체적 해석으로 이해할 뿐이다. 그 중 우리는 에덴동산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밀월의 장소인 성전, 성소로 이해한다. 하나님이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을 그리로 초청하여 거기서 사랑과 복종의 관계가 형성된 원형을 보인 다. 이 관계가 얼마나 지속되었는가를 알지 못하나 그곳에 자연 만물과 연결된 임재의 장소로 언약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성전같은 곳이 분명하다.

에스겔은 두로를 심판하는 예언 속에 에덴동산의 임재의 장소를 표현하기를 거기에 보석이 있었고 천사의 노래가 있었고 불돌이 있어 그 사이로 왕래하였음을 은유적으로 묘사한다. 이것은 임재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곧, 언약의 관계가 어떠함을 암시하는 표현들이다. 이 교제가 있었다면 아담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복종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장소였음을 보인다. 그 관계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모르나 분명한 것은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넘어질 수 있는 무드가 조성되는 결과를 가져온 장소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곧 넘어짐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문제를 가진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는 순종을 상실한 순간이 존재했음을 암시한다.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순종의 자리에 나가는 일에 실패한 것이다.

이 사랑과 복종의 축은 언약 당사자 간의 연합을 위한 것이다. 이 연합이 깨어진 것이 저주이고 전적 부패와 사망을 가져왔다.

언약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언약의 과정은 절대순종이 요구되고 언약의 결과는 절대 보호를 지향한다. 이것이 근동세계의 비문에 나타난 언약 방법이고 특성이었다. 성경의 언약은 그 시작은 삼위 하나님이고 언약의 당사자는 절대 순종하여야 하고 언약의 최대 목표는 언약자이신 하늘 대왕의 절대 보호인 것이다. 세상의 언약은 불완전하여 여러 세대가 바뀌면 인간적 탐욕 때문에 일시적인

순종과 불순종으로 망하고 승하는 쟁탈전이 계속되었으나 하늘 왕의 언약은 다른 조항이나 다른 결과를 생각할 수 없었다. 성부가 보내신 성자가 오셔서 그의 죽음과 부활로서 언약을 성취하고 그 안에 있는 자기 백성인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풍성한 절대 언약을 누리게 된 것이다.

이후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자 아담은 에덴 성전에서 쫓겨나야만 했고 하나님은 그 회복을 위하여 제단, 성막, 성전 등을 만드심으로 마침내 진정한 에덴동산의 그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고 그 교제를 누리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에덴의 회복이며, 교제의 회복이며 연합의 회복이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체되심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 그리스도를 보인 것이다.

(5) 은혜의 사람이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은총의 사람, 다니엘, 스룹바벨은 모두 그 형상을 가진 자에게 성령은 은총의 사람이라 했고, 마리아나 그외 다른 이들을 가리켜 은혜의 사람이라고 말한다. 언약의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은 심판도 마찬가지이다. 바벨 탑이 노아 홍수심판과 이 복된 언약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 언약은 홍수심판이나 바벨 탑사건 속에서도 심판으로 나타났다. 심판의 부정적인 면은 고치고 벌을 주는 것이나 적극적인 면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심이다.

삼위일체의 천상회의 결정으로 된 언약을 통한 구속이 은혜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살피는 것이 성경전체의 언약의 흐름을 살피기가 용이하다. 왜냐하면 구속사는 언약이 핵이고 언약의 핵 속에 하나님의 형상회복이 표현됨으로 온전한 구속이 성취됨이 하나님의 구속의 구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15 절의 에덴에서 시작된 언약으로부터 그와 관계된 언약적 성격을 논하고 나아가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다루고 마침내 새언약에 관해 그 성취의 열매를 증명함으로 우리의 목표에 이르게 될 것이다.

2. 창세기 3:15 절의 은혜언약

은혜의 형태로 된 구속 언약은 창 3:15 절에 최초로 나타난다. 이것은 아담의 창조때에 주어진 언약의 연장선이다. 첫 언약속에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인 천상회의 결정이 온전하게 표현되었다. 그곳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절대순종하는 하나님 백성과의 언약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의 맺어진 언약이지만 그 성격이 은혜언약의 절정을 암시하는 것이기에 은혜언약의 최초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타락 후에 변화가 일어난다. 거기서 어떻게 죄를 해결하는지를 보여주며 완성된 은혜 언약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미 절정에 해당되는 언약의 성격은 변함이 없고 언약의 당사자인 인간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여 원형의 언약 당사자의 지위로 끌어올리느냐가 관건이었다. 이것은 성경이 반복해서 보여주는 주제이다.

거기서 우리는 은혜언약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본다. 첫째, 구원의 시작-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구원의 성격- 사탄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분명히 했다. 둘째, 구원의 방법 - 중보자를 통한 구원이다. 그 중보자는 장벽을 파하고 이 백성을 성부와 연합시킨다. 세째, 구원의 결과,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 3:15)

성경은 계시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열어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구속을 생각하며 그 흐름을 보아야한다. 동시에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일방적인 약속의 형태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계시 흐름의 중심에 언약의 흐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아야한다. 금광의 맥은 검고 황금 빛이 나면서 차돌 사이에 끼여있듯이 계시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언

약의 금맥을 찾기 위해 주변의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 서로 연결시켜야 한다.

최초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록된 언약이 은혜 언약인데 창 3:15 절에 나온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실, 이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가지신 **구속의 언약** (성부와 성자 간의 언약)의 나타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죄 짓기 전,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이, 실패한 그들에게 즉시, 은혜 언약을 주셨기에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

창세 전에 성부와 성자 간에 맺은 구속의 언약이 행위로의 구원은 실패이고 은혜로 구원받음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 한 구절 속에 보여진 언약에서 우리는 구원의 중요한 세가지 원리를 발견한다.

첫째,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구원임을 분명히 하셨다. “내가 ... 하리라”는 것은 사람과 합작으로 구원을 받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단독 역사로만 된다는 것이다. 처음과 마지막이 모두 하나님으로 된다는 것이다. 이 원리는 역사 속에 계속 나타난다.

아브람 (창 12:1-3)을 부르실 때도 복의 근원이 되게하리라는 언약을 그와 상의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과 요구였다. 이것은

시작하신 분으로 그 일을 모두 주권적으로 이루셨다는 선언인 것이다.

모세 출 3:)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변명하고 도망치려는 모세를 불러 자기 백성을 야곱의 바로의 손 아래서 구출하는 머리로 삼으시고 일방적인 약속을 하신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주권적 약속임을 보인다.

그리고 다윗(행 13:22 삼상 13:14)의 경우,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내가 저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했다. 이것 역시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약속이었다. 그래서 베들레헴 들판의 보잘 것 없는 다윗을 불러 신정왕국의 왕의 상징을 보이는 자로 세우신 것이 모두 부름 받은 자의 장점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간섭하시고 마침내 이루시는 언약의 완성자이심을 보여준다

더욱이 최초의 새 언약의 예언 속에도 강조된 것이다. 렘 31:31, “... 내가 내 법을 새기고 새 영을 주리니”라고 한다.

지금 우리는 그 언약 속에서 산다. 갈 2:20 고백대로 “나는 죽었으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의 구원도 이 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내가 믿어서 함○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엡 2:8-9) 갈등

속에서도 이 원리는 변치 않는다. 인본주의 운동이 많은 이 때 우리는 하나님만이 구원이심을 전해야한다.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공산주의는 모두 이 갈등에서 자기 힘으로 벗어나지 못한다.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노력으로 착한 일을 해야 극락간다는 것이다. 구원에 보태기를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반대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다. 요 14:6 우리는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를 사탄의 최종 무기임을 인정한다.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려는 추태는 더 계속될 것이다. 포스트모던, 뉴에이지 사상은 하나님의 구원 원리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 구원은 하나님만이 행하신다고 말씀하신다. “내가 … 하리라”는 것이다. 이에 맞서 내가하리라는 사탄의 주장은, 철장을 휘두르는 권세로 깨어진 질그릇처럼 모두 부서지게 될 것이다.

둘째, 여인의 후손의 중보 사역으로만 성취되는 구원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되 여인의 후손을 통해 구원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은 성자를 이 땅에 보내어 그가 모든 것을 처리하고 단번에 이 구원을 이루어 믿는 자의 중보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아니면 구원이 전해질 수도 없고 모두 자력

종교로 떨어져 방황하게 된다. 후에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로 완성된다. 갈 4:4 에 그것의 성취를 염두에 둔 것처럼 보인다. 여자에게서 나게하시고는 (히 1:1-3) 구약에 여러 상징주의를 통해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계속 보여주셨다는 것이다.

광야에 이스라엘이 불뱀에 물려죽을 때 뱀뱀을 달고 누구든지 쳐다보는 자가 살아나게 되는 사건을 주님은 구속의 사건의 그림으로 설명하면서 그 뱀뱀이 죽임당한 그리스도 자신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하신다. (요 3:14) 그리고 광야 40 년간 내린 이스라엘의 일용할 양식, 만나 역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와 깊이 연합할 때 살아가는 능력을 공급받는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 참떡이라고 하셨다. (요 6:32-35) 그리고 르비딴에서 반석으로부터 솟아나온 생수 역시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형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서 그는 하나님 백성의 생명의 원천이셨다. (요 4:14)

지금 우리는 그를 내 주로 받아드림으로서 그 자리에 나간다. 여인의 후손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된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먼저 뱀의 머리가 여인의 후손의 발에 짓밟혀 부서지고 뱀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정점을 이루었다. 그리스도는 완전히 죽으셨다. 그 일로 우리 역시 죽었고 살아나셨다.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느 사이에 그 안에 집어 넣어 택함받은 자가 된 것이다. 이것이 원시복음의 골자였다. 우리가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그 분이 구원을 완성하시어서 그 안에 들어오는자만이 구원을 받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란 진리는 영원히 계속 될 것이다.

셋째, 그 구원은 분리와 연합의 원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구원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지는가? 분리와 연합의 원리이다. 이미 창조 때에 보여준 것은 바로 이것을 암시하셨다. 창조시에 만물을 분리시키고 연합시키고 깊은 물에 잠긴 땅을 끌어내어 모든 생물이 사는 터전이 되게 하심은 구원의 방법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주의 였다. 이 모든 일을 성령이 하셨다. 로마서 8 장을 보면 율법의 요구를 성령이 이루실 때 제일 첨예한 부분이 생각 속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으로 나누어 지고, 육의 생각을 하면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을하면 생명과 평안임을 분명히 하셨다. 우리는 구원의 일을 위하여 사탄과 같이 사는 것에서 떼어 놓고 그리스도의 연합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 복음이 들어가면 분리시키고 연합시킨다. 구원은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이기 때문이다. 그 연합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 의인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과정은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선을 그리셨다. 여자의 후손 안에 있는 교회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하고 뱀은 발꿈치를 물고 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을 지남으로서 마침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다. 이것을 믿은 바울은 로마서 16:20에서 말하기를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고 하셨다. (롬 16:20)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에게 두신 놀라운 약속으로,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우리가 나갈 때 일어나는 고난과 방해와 장벽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이다.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구원인데 이것을 한 중보자를 통해 이루신다고 약속하셨다. 성령의 역사로 이것을 행하신다는 것이다. 분리와 연합은 성령의 사역이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한다. 원시 복음의 완성이 예수 안에 완성되어 이제는 그 꽃을 활짝 피우는 때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다.

결론: 최초의 언약은 구원의 역사를 주제로 다룬다. 어떻게 구원하시나?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고 역사의 흐름을 통하여 언약을 세우심으로 구분과 연합을 통하여 이루신다. 언약의 절정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곧 사랑과 복종의 관계로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성경이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을 즐기게 하신 원천이라고 말한다. 계시,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 나아가 임마누엘로 나가는 것이다. 최초의 은혜 언약이 보여주는 이 그림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깨달으며 즐긴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되고 그 구원은 사탄과의 분리와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임마누엘로 나가는 것이란 사실은 수천년이 지난 오늘도 복음 안에서 같은 원리이다. 원시복음은 완전한 복음 안에서 부화하고 수많은 복음의 삶을 만들고 씨앗의 발아처럼 움이 돋아 꽃과 열매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와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3. 노아의 은혜언약 (자연언약)

앞서 말한 구원의 세가지 원리가 역사 속에 다양한 형태로 계속 나타나지만 언제나 은혜 언약을 증거함에 귀결된다. 에덴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돋보여진 은혜 언약의 원형을 따라 노아 언약을 통해 그 원리가 또 나타났다.

노아 시대에 죄가 관영하고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악하고 패괴하여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뿐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인 셋의 계열마저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여 불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일색이던 때에 하나님은 사람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물로 멸하시기로 걱정하셨다. 그 때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방주에 들어감으로 전면적인 세상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받는 자리에 나가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세가지 성격을 본다. 죄로부터의 분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은 노아의 선택받은 식구들을 세상에서 분리시키는 일을 하셨다. 방주 속에 친히 들어가게하시고 문을 친히 닫으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첫번 원리인 분리 작업을 하심을 보인 것이다. 그리고 방주 속에 들어 가 하늘로 열린 하나의 창문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와의 친밀한 연합을 위하여 교제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마침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음으로 새 인류의 머리로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방법과 원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최초의 인류의 머리, 아담은 실패했으나 둘째 머리로 부름받은 노아는 사탄에게서 분리되어 하나님과 연합하는 인류의 머리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이것은 작은 상징으로 나타난 구원의 그림이지만 장차 나타날 완전한 인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이 이런식으로 일어날 것을 강조한 그림이다. 상징 속에 상징을 두어 반복적으로 그 주제

를 설명하심은 강조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면서 언약을 체결하기까지 물이 마르고 회복되는 과정에도 성령의 구원 역사의 개입은 놀라웠다. 바람이 불게됨으로 물이 감하여졌다, 영광의 영이 혼돈, 공허 속에 있는 땅을 원상태로 바꾸시는 창조주의 일을 이루신 것이다. 그런 상징이 보여준 것 못지않게 그 영의 역사는 구원받은 노아의 전 식구를 간섭하셔서 이 언약에 참여하게 하신 분은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 언약 백성은 한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서 은혜 언약을 세우셨다. 그것은 아담과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아담에게 최초로 주어진 언약과 사명과 일반은총의 복은 변함없이 계속되었다. 창 8:20-22은 말하기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1)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언약의 대상자가 노아의 후손만이 아니라 자연 만물도 포함된다는 사실 때문에 자연언약이라고 말한다. 이 언약은 여전히 은혜언약의 범주 속에 들어간 것이 별도의 언약이라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언약백성의 보호와 구원의 문제를 무지개란 싸인을 통하여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무지개는 할레나 홍해도하처럼 새언약에 나타날 실체인 세례를 가리킨다. 베드로의 정의대로 세례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와 함께 살아나는 사건이다. 노아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연에 대해서는 본래의 주신 사명대로 자연법칙을 따라 생육 번성하는 창조의 뜻을 따라 나가야하지만 언약백성에게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의 형상의 영광을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시려는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셨다. 그래서 일반은총이 별도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은혜언약을 이루는 과정의 무대이며 수단이 되게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노아의 언약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현장인 문명 문화의 무대에서 어떻게 적절히 구속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인지를 암시하는 중요한 샘플이 되는 언약이기에 의미있는 언약이다.

바울이 행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은 헬라인처럼,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은 일반은총의 흐름을 이해하고 복음을 위한 통로로서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 것이 언약백성이 가여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복음증거의 현장에서 일반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제 위치에 잘 두게하는 통찰을 제 공하기 때문이다. 그 통

찰력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자리까지 나가는데 있어서 초자연적 능력이 강조되어야하지만 일반은총을 떠나거나 무시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도리어 우리는 구원을 받은 후에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있는 거기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찬 문화와 문명을 이루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막 16:13)

또한 언약을 세우기에 앞서 하나님은 언약의 내용인 은혜의 구원의 증거들을 보이셨다. 물이 창일할 때 하나님은 바람을 보내어 처참한 심판의 몰골을 치료하여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이루게 하셨다.

그 기간 흑암, 혼돈, 공허의 골짜기 속에서 자기 백성을 철저히 보호하셔서 아라랏 산까지 이르게하심 이 모두 언약 백성을 향한 구원의 과정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는 그 언약의 중보자로 세워져 완성 될 은혜언약 곧, 새언약의 중보자인 그리스도를 예시한 것이다. 노아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마침내 은혜언약을 체결하는 제단에 그의 순종과 그의 경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나타났다. 구속의 원형은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여기서 그 연합은 그들의 가족들로 인해 세워졌다. 그 연합의 형태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임재한 모습으로 거기에 나타난 것이다. 언약백성은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로서로 연합함을 선포하심이다. 그 후 나타난 언약은 바로 구속 언약의 성격을 보여주지만 그

대상에 자연까지 포함했다하여 자연언약이라하지만 이것은 은혜언약을 세우는 시녀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의도한 것이었다. 그래서 자연언약은 은혜 언약의 또 다른 형태이다.

창 3:15 절의 언약이 여기에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다. 도리어 일반 은총이란 구속의 날까지 그 완성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완전한 구속이 나타나는 그날 곧, 새하늘과 새 땅, 새생명 새사람이 나타날 때 새로운 창조물로 나타난 구속주를 영원히 찬양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롬 8:) 그래서 계시록에는 24 장로 네 생물, 천군천사 그리고 만물들이 구속주를 찬양하는 일에 동참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과학의 발달과 4 차 산업혁명의 열풍으로 사회 관계성의 발전으로 100 세 건강시대를 향한 준비를 위하여 사람들을 부추킨다. 이 때 사람들은 좋은 음식 적절한 운동과 수많은 자연혜택을 이용한 결과들을 이용하여 인간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은퇴 후 고령화문제가 다시 일을 해야만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진다. 사람들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 때 일반은총의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특별 은총의 지위를 동등으로 두는 경향이 있다. 은총이 자연을 지배하기 보다 자연이 은총을 지배하는 물결이 몰려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 이것은 중세 로마가 가진 세계관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향을 사상적으로 받는 자리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은혜의 가치를 상대화시키고 알반은총을 그곳과 바꾸려는 경향이 많다. 그 때 우리는 노아언약에 주어진 원리인 자연은 구원을 위한 시녀로 잠시 허락하신 것이지 영원히 자연을 섬길 수 없는 것이다. 이 질서가 무시되는 곳마다 그는 또 다른 유상을 섬기는 자리에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목사의 제일 임무는 영혼을 죄에서 건지려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인데 육신의 안일과 평안에 치우친다면 그 구원신앙은 이미 순결성을 잃고 경건의 모양은 가지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노아언약 속에 놓인 이 우열이 방황하는 신장의 삶을 하나님은 나의 주이시고 나는 주의 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복음을 전방 선교지에서 이런 타협이 몰려올 때 우리는 이 원리를 존중하여 그 유혹에서 자유해야 한다. 자연의 혜택을 이용하되 그곳은 섬기는 자이지 주인의 행세를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많은 물과 풍요로운 양식의 소출과 편리한 의료시설이 복음을 대신할 수 없다. 죽음없이 자연혜택의 누림은 저주이고 자연 혜택없이 복음을 순수히 다룸은 복종의 복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언약은 이 시대에 분명한 기준을 제공하기에 의미있는 과정이었다.

제 2 장 언약의 씨앗 - 하나님의 형상

1.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은혜언약

구속 언약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자력구원의 부족함과 은혜의 구원으로만 된 진리를 여러 사건들 속에 계속 말씀하시다가 드디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본으로 삼으시고 은혜의 원리로 구속이 이루어짐을 더 분명한 실예를 구속사에 들어내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우리는 은혜 언약의 원형을 처음으로 만난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구속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냈기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언약의 원형은 변함이 없지만 그것의 적용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표현된 은혜언약이란 무엇인가?

1) 구원의 방법 - 아브라함 언약에 보여진 것은 은혜언약의 온전한 모형이 나타난 점에서 천상회의 구속언약의 복사판을 더 분명히 들어난 것이기에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는 참 구원의 삶을 한 사람 아브라함의 경건의 삶에 근거를 둔다. 그래서 우리는 이신칭의의 구원을 아브라함에게서 찾는다. 창세기 15 장에 약속된 자손의 징조가 없을 때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다. 그 때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신다. 아브람이 행함으로 의를 얻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를 얻은 것이다. 자기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따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그 때에 믿은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그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이다. 이것은 은혜의 원리, 믿음의 원리, 주권의 원리, 그리고 종의 원리가 그대로 반영되었다. 가난한 심령, 애통의 심령, 온우한 심령,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심정이 그에게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이것으로 아브라함은 모든 언약 백성의 믿음의 조상, 은혜의 조상이 되었다.

2) 구원의 모습- 이것은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세우심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으로 나가게 된다. 후에 그 이신칭의는 복음 속에 그대로 나타난 것으로 바울은 인용했고 야고보는 믿음의 행함의 본으로 인용한다. 먼저가 믿음이고 다음이 행함인 것을 분명히 했다.

다음에 나타난 것이 은혜 언약은 중보자인 아브라함의 중보를 다시 보여주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으로 언약 백성이 구원에 이른 것을 강조한다. 아브라함 한 개인의 긴 생애 속에 그의 초점이 아브라함의 씨인 이삭을 통한 언약의 흐름을 강조하심이 상징으로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 바울이 설명한다.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으로만 이 은혜가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그 중

보자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바쳐져야 하는 이삭은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것이다. 오직 참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가 순종의 죽음으로 언약백성의 구속을 모두 완성하신 것이다. 이것 역시 바울은 자세히 설명하여 이신칭의 구원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난 저주 받은 자가 된다고 선언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신약의 완성된 새언약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도리어 그 언약을 종전과 달리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한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의 범세계성을 미리 말해줌으로 민족주의로 흘러간 이스라엘의 우월감에 췌기를 박았다.

그 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보여진 언약의 발전을 통해 우리는 은혜 언약의 완성을 통한 과정을 반복적, 점진적, 윤리적 성향을 본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될 것이고 그 방법은 동일하였다.

우상 장사하던 아브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언약적 성격을 가지신다. 일방적인 세가지 약속,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창대한 이름을 갖게하시고,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다. 그 복은 풍성한 생명의 원천으로 구속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용어이다. 그 셋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성취된다. 다시 말하면 구속 곧, 죄사함을 기본으로 한 것으로 성령의 약속을 가리킨다. (갈 3:14) 마태복음 28:19-20 절은 이 약속의 성취를 선포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과 그의 약속의 실체이다.

1. 아브라함은 은혜 언약의 본이다. 이신칭의, 중보자,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이는 아브라함의 씨인 이삭을 알린다.
2. 구속의 보편주의
3. 구속과 선택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회복이다. - 창 18:19 의와 공도의 생활

정리- 아브라함의 언약은 복종으로 완성되는 은혜의 요소를 더 분명히 나타낸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을 때 은혜의 산물인 구속을 얻었다. (롬 4:3, 창 15:6) 할레는 노아시대의 무지개같은 은혜의 씨인이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만이 자기 백성의 구원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그의 언약은 행위가 아닌 믿음에 속한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칭의의 거울이고 이삭의 생애는 구속적 겸손의 거울이고, 야곱의 생애는 성화의 거울이고 요셉의 생애는 영화의 거울이다.

제 3 장 언약의 두 줄기 - 사랑과 복종

4. 모세에게 주어진 은혜언약

1. 모세

1) 은혜의 요소

(1) 중보자를 통한 은혜가 임함 (출 32:32)

(2) 은혜의 결과 - 언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사랑과 복종으로 이루어진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의 임재, 통제 그리고 권익 여러 상징주의 곧, 초자연적 싸인들 (40년간 모든 활동에 그리스도부터 나온 만나, 메추리고기, 생수, 수, 단벌옷, 발이 부릅뜨지 않음 등) (고전10:3) 특히 영광의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자기 백성의 모든 삶을 통제를 의미하는, 성령의 구름, 성령의 불, 성령의 성막, 제단의 성령, 제물의 성령, 대제사장의 의복의 성령과 거기에 붙은 장식의 성령, 특별한 날과 절기의 성령, 모세의 율법의 성령으로 모형으로서 그들을 계속 인도하셨다.

(3) 영광의 성령은 초자연적인 요소와 자연적인 요소이 석인 상

태로 나타났다. - 그리스도를 통해 공급된 만나, 고기, 물 (고전 10:3).

(4) 하나님은 가나안을 준비하셨고 큰 사랑, 깨우는 사랑, 운행하시는 사랑 그리고 돌보시는 사랑을 가리키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신32:11) 마침내 신정이 이스라엘 안에 세워졌다.

2) 행위 요소

(1) 율법 (613 조항)

(2) 십계명

(3) 공의, 거룩 진리 (엡 4:24, 5:9) - 하나님의 형상

(4) 그것은 율법의 요구를 나타내었으나 그들은 그 표준에 이를 수 없었다. 그것은 네 가지 성격을 가진다.

a. 표준을 알게되고

b. 불가능성을 알게되고

c.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d. 영광의 성령의 일하심으로 채워진다. (롬 8:4, 갈 5:18 3:11-13)

정리: 모세의 언약은 은혜언약안의 언약의 행위를 나타낸다. 다시말하면 은혜안의 율법, 믿음안의 행위를 나타낸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 존재와 행함그리고 믿음과 행함으로 구속의 원형을 보인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의크신 은혜로 싸여져있다. 비록 사람이 행위어약으로 사여잇다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원형적 은혜언약, 곧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실제생활안의 영과육의 ㄷ툼인 교회와 개인 속에 많은 다툼을 가져온 구속언약을 나타낸다.

이 은혜언약이 더 발전적인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심으로 확증하셨다. 이것은 특히 은혜언약이지만 여전히 행위언약과의 관계를 잘 묘사한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의 자기형상으로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왜냐하면 은혜언약은 순종과 사랑 관계로 완성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출 20:1-23:에서 체결된 이 언약은 어떤 점에서 은혜언약의 원리를 보이는가? 먼저 하나님이 시작하 시고 일방적이 계약조항을 주심은 언약의 원형인 에덴동산에서의 언약체결 원리가 그대로 나타났고 그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다른 열방에서 선택받은 구별된 백성으로서

언약의 주관자이신 여호와와 백성으로 사랑과 구속과 보호를 받는 입장에 있음을 들어내셨고 더욱이 이 언약은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 그를 통하여 여호와와 교통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심이 은혜언약의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기에 은혜 언약의 영역에 넣는 것이 옳다.

언약의 주님과 아스라엘의 사랑관계를 잘보인 것이 신명기 32:에 나온 모세의 노래에 언급되어 있다. 거기에 여호와와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1. 하나님의 사랑 (신 32:10-12) -, 모세의 노래는 모세가 죽기 전, 이스라엘의 장래에 기억해야 할 언약을 노래로 만들어 기억하게 하신 것이다. 신 31:21-22 에 “이 노래가 증인이다”고 한다. 그 내용은 언약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며, (4, 하신 일이 완전하고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여수론- 의로운 백성) 보여준다. 그리고 그들이 욕심 때문에 타락하여 징계를 받지만 회개할 때 즉시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심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언약을 회복하시는 길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 노래는 43 절에” 너희 민족 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죄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승리하는 결론을 내린다.

1) 그 중, 우리는 10-12 절에서 창 1:2 절에 나오는 “ 여호와와 신이 운행하시니라”는 단어인 라하 췘이란 말을 다시 만나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묘사인데,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기 위하여 공중에서 “너풀거리는”(베라하췘) 모습이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동기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 큰 사랑임을 본다. 엡 2:4 에 그 큰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을 그림으로 보여주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사랑이 구속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모세의 의도를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을 사랑한 여호와와 언약적 사랑은 무엇인가?

첫째, 깨우시는 사랑이다. - 11 절에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너풀거리고 새끼를 받는 일”은 고난이지 만 놀라운 사랑의 행위이다. 예고없이 독수리가 새기가 잇는 보금자리를 훌어버리는 행동은 현실에 안주하려는 새끼들을 깨우는 사랑이다. 그 중 새끼를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상황은 위기일발의 긴장을 동반한 고통일 수 있다. 그러나 새끼의 성장을 위해 거칠게 때우시는 어미의 심정이 우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보인 것이다.

-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난 속에 넣어 훈련하신다. 고전 10:13 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40 년의 광야 생활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흠으신으로 각성케하시는 사랑이다. 우리도 고난 속에서 그 크신 사랑을 안다.

피할길,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지기에 위로를 가지며 용기를 갖는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무엇인가? 깨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알 수 있다. 고난을 바로 정의하는 것은 성경뿐이기 때문이다. 고난이 저주인가? 아니다. 고난 당할 때 내가 강하다고 사도는 고백한다. 고난은 유익인가? 예, 그래서 고난당할 때 생각하라, 기도하라고 하셨다. 고난은 행복인가 불행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고난이 복인 것을 배운다. 전도서 7:14 에는 형통과 곤고를 병행하여주심이 장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야만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이다.

스데반이 그 사랑을 알았기에 원수를 향하여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 초대교회 한 성도는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을 얼음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건져주고 자기는 잡혀 죽는 사랑을 가졌고, 어떤 권사님은 자기를 치어 내다버린 뺑소니 운전수를 용서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둘째, 너플거리는 사랑이다. 11 절에 보금자리를 훌어버리고 떨어 뜨리고 그를 받는 그 과정은 새끼 독수리는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경험이고 비밀이다. 나중에 알고보면 엄마의 뜨거운 사랑이 깔려 있는 것이다. 눈동자의 보호는 일차원이라면 훌으시고 공중에 올라

떨어지는 새끼를 관망하는 어미 독수리의 너풀거리는 과정은 고차원인 사랑의 활동이다. 이처럼 독수리가 새끼를 연단할 때 일정한 과정을 두듯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게하기까지, 고난, 곤고, 환난, 적신, 위험, 칼 그리고 미사일까지 너무 잘 이용하신다.

성화는 고난을 통하여 만들어진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애매한 고난을 견딜 때 영광의 영이 함께한다고 했다.

왜 그런 긴장의 과정을 두시는가? 3 가지 목적이 있다. 1) 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4-5) 2) 자기를 알게되고 3) 하나님을 닮게된다. (의인신) 지근도 하나님은 분초마다 은근한 사랑으로 연단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셋째, 옆으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사랑이다. 너풀거리며 은근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신다. 모세의 노래 속에 “ 여호와는 반석이시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온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런데 여수룬아 기름지고 밭로 찻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15)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18, 30,31)”, “이제는 나 곧 내가 그 인줄 알리라

나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하며 살리기도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기도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38) “너희 민족들이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의 종들의 피를 값으 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43)

이것은 오직 여호와만이 반석임을 알아라는 것이다. 다윗도 삼하 23:3-4 절에 보면 그의 마지막 말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여호와란 말을 즐겨 사용했다. 그가 모세의 노래에서 배운 것 같다. 그 때 그는 그 반석이 아침의 햇살, 구름없는 아침, 비온 후에 돌아나는 새 풀 같다고 했다.(1 절에는 하나님의 교훈이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다고 했다.)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며 세계 속에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이다.

구원(회복)이란 하나님이 본래 원하신 풍성한 세계이다. 물질적인 세계인가? 아니다. 훌륭한 문화 환경인가? 아니다. 육신의 건강인가? 아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세계이다. 의인신 곧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세계이다. 그래서 영광으로 인도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거하기를 좋아한다.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슌 3:10)”고 했고 계 3:20에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언약의 절정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언약의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 이후에도 계속되었음을 모세는 설명한다. 그것을 우리는 두 본문에서 만난다.

1) **홍해 속에 마른 땅을 준비하신 보호** (출 14: 15-20) 수많은 상징주의와 모형으로 이뤄진 하나님의 보호는 하나님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려는 성령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 하나이다. 성경신학자 보스는 상징주의의 집의 마지막 문이 모형주의가 시작되는 관문이라 말한 바가 있다. 상징주의와 모형주의는 연결되어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본문을 만날 때, “그 실체가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여준 것인가?”, “사도와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라는 물음을 던져야한다. 예를 들면, 늦밤을 드는 사건은 구원을 알리는 상징주의 인데 늦밤은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모형)이다. (요 3:14) 이것은 예수 님이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상징주의와 모형주의의 실체를 불러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래야만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 그 실체를 몰랐기에 늦밤을 우상으로 만들고 말았다. 느후야단. 이것은 성경을 그릇되이 해석한 결과이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보여주는 계시이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전 10 장 에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홍해 속에 마른 땅을 두신 상징주의는 이스라엘이 세례를 받는

사건이다. 고전 10:1-2 에 “다 구름 아래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할 때 그는 이 큰 기적의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것은 선지자인 이사야도 그렇게 보고 있다. “사 63:11-12 , 영광의 팔이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 본문에도 마른 땅(21), 육지로 행하고 (29) 육지로 걸어가고 (22) “, “홍해 기적이니 기이하네” 등의 반응을 통하여 성령은 하나님 백성에게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구원인가?

첫째, 그것은 전무후무한 놀라운 기적이였다. (21-22) -21-22 절에 보면 손을 내미는데 여호와께서 동풍을 불게하시고,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물벽이 생기고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게 하셨다.

31 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시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을 믿었더라.”고 한다. 기적이란 자연에 대한 초자연의 개입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수단이 기적이다.

홍해 속에 마른 땅을 내신 일, 건너는 과정에 보호의 손을 보이심, 불기둥으로 보호하심, 애굽사람이 수장됨 등은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증거들이기 때문에 희적이다. 왜 놀라운가? 이스라엘이 한꺼번에 경험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창 3:15 절의 약속이 지금 또 일어

난 것이다.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심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다. 십자가의 승리가 미리 나타난 것이다.

이 사건이 모두가 아니다. 이것은 더 큰 기적인 구원의 손이신 주님을 바라 보라는 싸인이다. 정말 기적의 사건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빌 4:13의 기적의 삶 (궁핍과 풍부에도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을 우리가 구해야한다. 한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다. 중생의 사건, 성화의 사건이 기적이다. 그러고보면 신자는 기적 속에 사는 사람들이다. 죄에서의 구원이 일어난 사람이다.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다. 구원받는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교회이다.

둘째, 그것은 구약 교회가 세례를 받는 사건이다. - 이것은 단지 놀라운 기적으로 묻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 신화처럼 되어버리고 그저 이야기 거리로 전락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더 나은 실체를 가졌기에 표적인 것이다. 하나님 백성의 세례받음을 가리킨다. 세례는 구원의 싸인이다. 불세례를 받은 것이다. 언약의 의식과 같다. 고전 10:1-3 절에 바울은 이것을 해석하고 있다. “ 그들을 항상 따르던 그리스도에게서 먹고 마시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다. “

구원받은 교회는 죄와 죄책과 세상의 흥해, 세속 생활의 흥해를 건넌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가야한다. 밭은 열매를 내어야하고 집은 편리하고 평안해야한다.

셋째,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다. - 여기서 우리는 창 3:15 절의 구원원리를 그대로 본다. 전적으로 행하신 분의 단독역사와 분리와 연합의 역사, 중보자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보여준다. 모세, 마른 땅, 지팡이, 동풍이 불어오는 것, 그 배후에 상황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생각나게한다. 성령의 운행으로 흥해 속에 마른 땅을 두신 것이다.

그러데 우리는 모세언약 속에 행위언약의 성격을 본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바울은 어떻게 다루는가? 이것은 율법의 요구를 성취해야하는 것을 관찰한다. 모세의 언약은 행위언약의 요구가 복음 안에서 성취됨을 보인다. 이것은 율법과 복음의 연속성의 문제와 불연속성의 문제를 이해하게한다.

1) 연속성- 바울은 이 둘이 구속선 상에 놓은 점에서 연속성을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 속에 복음, 복음 속에 율법이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 이신칭의로만 구원을 얻는 원리가 강조된 상징주의의 의를 주장한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미 그 자리에

나간 것처럼 신자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인 의인신이 이루어지는 구도를 본다.

2) 불연속성- 그러나 이 둘은 서로 구분되어야 하는 요소임을 사도는 강조한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기에 우리는 율법은 복음과 비교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인가? 율법의 요구는 그 표준을 제시하고 그 앞에서 자신의 불능을 대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나갈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율법의 요구를 성령으로 이룬다. 당시 유대주의 문제는 복음을 믿고 율법의 할례와 그 조항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나. 이것은 불연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였다. 그 때 사도는 이 둘의 양극화 현상을 이렇게 설명한다.

결국 이것은 옛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로 옮겨진다. 옛 언약은 율법, 새 언약은 복음 그리고 전자는 행함의 구원, 후자는 믿음의 구원을 강조함으로 은혜언약의 긴장성을 요구하며 그것을 생활 모든 영역에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목적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은 믿음의 시녀로 섬기며, 행함은 이 은혜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게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양극화만을 주장함이 아니고 불연속성이나 연속성의 배경 위에 서 있는 불연속성을 강조하기에 우리는 그 긴장을 본다. 그런 그들에 대한 분명한 응답은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회복의 자리로 나가게하는 것을 분명히 할 때 이 긴장이 해소된다. 이는 구원은 단지 죄사함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형상인의인신을 닮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거함으로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행위언약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시작은 은혜언약의 발전을 보인 것을 인정해야한다. 더욱이 한 책임을 가진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언약의 머리인 노아처럼 상징주의적 인물인 모세를 옛 언약의 머리로 세워 상징주의 형태로 새언약을 기대하고 증거하는 모형으로 나타난 것이다.

5. 다윗에게 주어진 은혜언약

모세를 통한 은혜언약은 다윗에게 와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분명해 진다. 마치 구속의 여명처럼 새언약의 성격을 더 분명히 나타낸다. 왜 그런가? 다윗을 통해 그동안 은밀하나 강력하게 준비되고 일하신 구속의 목표가 신정을 세우심으로 나타나게 하셨기 때문이다.

신정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언약 완성은 다윗에게 와서 공적 형태로 나타났다. 그것이 다윗 왕국이였다. 그를 통한 구속은 메시아에게 초점을 맞춘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온대로 주님께 대한 자원의 마음으

로 성전을 세우려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여호와와는 다윗과 영원한 은혜언약을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언약의 두가지 성격을 발견한다. 1) 은혜의 방면- 그 언약은 다윗의 응답여부보다 하나님 자신의 일방적인 체결이었다. 그 때 다윗은 조건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려는 자원의 심령으로 충만했다. 그 때 하나님은 세가지 약속을 하시기를 1) 큰 나라를 주시고 2) 위대한 이름 3) 그리고 안식할 수 있는 땅이다. 이 세가지는 일찌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내용과 유사하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세가 가진 연단을 원하셨기 때문이다. 그가 이 언약을 수행하려면 자아부인과 전적 헌신의 마음을 가져야한다. 즉, 새 마음을 요구하셨다. (행13:16-23) 그리고 그 새언약의 요소인 자원의 헌신을 가져야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와 행위, 양면을 동시에 말하지만 그 언약은 은혜로 된다는 사실로 많이 기울어진 것처럼 보인다.

다윗의 언약에 나타난 두 요소는 어떠한가?

1) 은혜요소

(1) 하나님이 언약을 시작하셨다.

(2) 다윗은 자원하는 마음을 가졌다.

(3) 하나님은 상징인 성전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 (6)

(4) 세가지 약속

A. 큰 나라- 회복의 나라

B. 큰 이름

C. 땅 (안식)

(5) 다윗의 새마음 - 자아부인, 헌신 (행 133:16-23)

(6) 그는 새언약 요소인 자원의 헌신을 가진다.

(7) 모세는 은혜와 행위의 양 요소의 혼합된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다윗의 경우는 은혜의 면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2) 행위요소

(1) 율법의 표준을 따름

(2) 시편119: 율법의 경험주의

(3)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반석이다. (모세의 노

래) Jehovah is the rock of Israel (Moses's song)

(4) 그는 전능자이시나 겸손한 방법을 사용하셨다. (삼하 23:4)

A. 아침 빛 - 산소망

B. 태양 광선의 비춤 - 의

C. 새싹 위에 내린 보슬비 - 치료와 성장의 능력

다윗 언약은 그가 구속자의 은혜를 의지했기 때문에 은혜언약의 절정인 새언약을 기울어졌다. 그는 새언약의 죄사함을 누렸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의, 평화, 보편주의, 전능성 그리고 주권으로 이루어짐을 이해했다. (사9:6) 그는 상징주의(성전, 법궤, 모든 절기 등)의 실체를 보았다. 그는 독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요1:14)의 원형인 영원한 사랑과 진리를 즐겼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모세보다 더 은혜언약의 실체를 맛보았다. 그는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풍성함으로 채워진 한 모델이었다.

먼저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이것을 표현하는지를 살피는 것이 좋겠다. 삼하 7 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모세에 행하지 못한 일들을 본다. 그것은 다윗을 통하여 그의 뜻을 다 이루게하신다는 중보자요 도구를 필요로 하심을 보이고 그가 세우는 나라는 영원한 지상나라 임을 보였으며 언약의 절정은 군신관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 순종을 요구하심을 다시 본다. 일세대과 이세들이 가진 사상의 흑암기에도 하나님이 요구는 초점이 결코 바뀌어지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원리가 더 분명히 나타난 것이다. 이것이 모두 승리와 실패, 복과 저주를 가늠하는 기준대가 되게하셨다. 아브라함 한 개인이 가진 복이 여기서는 다윗에게 그대로 같이 옮겨진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은혜 언약의 모든 요소가 아니다. 단지 이것은 상징일 뿐이지 실체가 될 수 없었다. 다윗 자신이 죄를 범함으로 회개하여 언약이 회복됨을 보여주심으로 앞으로 다가 올 종말론적 새언약의 형태를 미리 보여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여기 사역에 나타날 신자들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형상회복임을 한 샘플을 통해 보여주셨다.

다윗의 은혜언약은 10세기 간의 이스라엘 왕정을 통하여 나타났어도 하나님의 형상, 의인신을 상실함으로 그들은 이 땅에서 경건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인간의 나라를 세워 어두움에 떨어져

어둠의 세계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되었다. 도리어 그들은 불의와
광포와 불신실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 뜨리고 방황하다 새언약의
머리이신 진정한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를 영접
하지 못하여 영적 암흑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다.

제 4 장 언약의 꽃과 열매 - 의인신 (하나님의 성품)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주제인 구속을 은혜언약이란 말로 바꾸어 그것이 구속사 속에 어떻게 점진적으로 발전되었는가를 보면서 그 마지막으로 언약의 완성품인 새언약을 다루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살핌을 통해 구속의 찬란한 꽃과 열매를 본다. 이것은 신약의 사도와 복음전도자 곧 성경의 저자들 즉, 언약의 책인 정경을 기록한 성령의 도구들을 통하여 그 특성을 보는 일이 남았다. 열매로 보고 그 나무를 알고, 성취를 보고 그 예언의 신실성을 이해하듯, 이 신약의 저자들이 본 언약의 영광을 보는 특권을 가진다.

새언약의 종인 마태, 요한, 누가, 바울, 베드로 그리고 히브리 저자에 보여진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의 열매를 생각해 보자. 우리는 신약의 각 저자를 중심으로 아래의 언약에 관한 점검사항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서 구약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났는가를 살피는 것이 좋겠다.

언약에서 일곱가지 아래와 같이 점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1. 저자는 옛 언약의 연속성을 말하는가?
2. 저자는 새언약의 불연속성을 말하는가?

3. 저자는 하나님의 형상의 열매인 의인신을 보이거나?
 - 1) 의의 모습
 - 2) 인의 모습
 - 3) 신의 모습
4. 저자는 새언약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의식하는가?
5. 저자는 새언약의 현재의 삶을 강조하는가?
6. 저자는 새언약의 장래의 삶을 보이는가?
7. 저자는 새언약의 과거 현재 미래의 관계를 설명하는가?

1. 구약적 언약정리 - 구약, 옛언약이 새언약으로 바뀌어지는 전환점에 쓰임받은 선지자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을 통해 보여진 것은 완성될 새언약이었다. 이것은 초창기에 상징주의로 암시한 것을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가까운 시점에서 더 확실하게 증거했다.

1. 그들이 예언한 것은 자기들이 받은 새로운 계시가 아니고 창세전 천상회의 결정인 구속언약의 신약적 표현을 담대히 선포한 것이다. 구약 역사 속에 간간히 상징주의 베일 속에서 그 실체를 나타낸 것을 여기서는 보더 더 분명한 표현들로 보여주기에 놀랍다. 우리가 본대로 믿음의 족장들에게 요구한 것은 언약의 순종 곧,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었다. (창 18:19)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것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 의인신의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여수룬으로 사는 것이었다. (신 32:) 그것이 용어만 다를 뿐이지 때로는 “지혜”, “여호와 경외”, “하나님과의 동행”, “능력”, “치료,” “복” 그리고 “친밀한 신적 교제”로 나타났다. 그러다가 예레미야는 이것을 새언약의 나타남으로 표현한 최초 선지자로 4 중 신약적 성격 즉, 1) 내 신을 부어 주며 2) 새 마음을 만들고 3) 새 법을 심고 4) 자발적인 신 지식을 알게되며 5) 절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리로 이끄시는 것으로 표현했다. 성령이 신약에 성취될 새언약의 영광을 계시한 것이다.

이사야 역시, 그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장차 종말시대를 새언약의 영광 곧, 언약의 나라인 하나님 사랑의 형상, 절대주권적 능력, 하늘의 평강, 의 그리고 보편주의적 영광의 성격을 나타냄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을 미리 말하고 있음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다. 그래서 보스는 그를 가리켜 구약의 바울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기에 사역한 에스겔에게도 똑 같이 나타났다. 그는 그의 책 마지막에 완성될 새 예루 살렘의 모습을 설명할 때 외형적인 것에 머지 않고 내실에서부터 시작되어 밖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설명할 때 예레미야의 내용과 일치하는 면을 본다. 그는 이미 신약에 완성될 새언약의 영광을 알고 있었던 것

이다. 아니, 언약 백성이 이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와 완성될 그 세계를 보고 즐거워한 것이다. 고독의 선지자에게 그 영광은 절대 위로가 되어 고난 속에서도 새언약의 증거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신약 속에 성취된 새언약은 성령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함으로 더 현실화되었다. 사도요한은 이 사실을 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독생장의 영광이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라고 말한다. 히브리서기자는 히 1:1-3 절에 “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고 말한다. 새언약 백성은 옛언약과 다른 점이 하나님이 직접 시작하시고 완성한 형상으로 만드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경을 기록한 도구, 신약 저자들의 기록을 통해 새언약의 성격이 하나님 형상회복의 영광을 검토함으로 그 완성의 증거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관점이 다르나 새언약의

적용에 일치를 가지며 그 열매는 스펙트럼의 비침처럼 다양하게 그 영광을 보여준다.

1) 마태의 신학 속에 보여진 새언약의 증거들- 마태는 조직신학자처럼 그리스도의 사역을 주제별, 즉, 그리스도의 탄생, 산상보훈, 그리스도 능력의 사역, 제자 파송, 천국비유, 외식자의 책망, 말세훈, 그리스도의 수난 등의 주제를 한 곳에 묶어서 그리스도의 천국의 왕이심을 증거한다. 이것은 새언약의 영향이 나타날 신정의 실체인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임재와 미래적 완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계시이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산상 보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보며 새언약 백성의 삶이 옛언약과 비교될 수 없는 탁월한 열매를 나타내어야 할 표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만난다. 그리고 그 언약 백성은 미래에 완성될 그 형상의 영광을 기다리지만 현재의 삶에 항상 종말론적 긴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인신을 현재 상황에 나타내어야 할 처지에 있음을 보인다. 바리새인들의 것과 달리 새 언약 백성은 성령의 권능으로 그것을 이루는 차원까지 나아갈 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남기신 나머지 사역을 이 땅에서 역동적으로 이를 책임을 가진다.

2) 특히 주님이 말씀하신 마 23:23 절에 율법의 613 조항의 기초가 의인신임을 분명히 보이시며 그 실체를 삶에 적용하는 사명을 수행해야 됨을 보여주셨다. 율법의 613 조항은 긍정문

248 개, 부정문 365 개로 구성된 것으로 그 바탕은 하나님의 성품이 적용된 생활의 표현임을 밝히심은 하나님의 형상회복이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회복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인간의 노력을 넘은 성령의 인도를 성실하게 받음으로 나타나는 사도의 가르침을 암시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을 좇아 생각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초자연적 사랑에서 맺혀지는 것임을 명시하셨다. 한마디로 생활의 그 열매는 철저히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과하여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만 되어지는 윤리임을 선명히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는 그 형상의 삶이 현재라는 삶 속에 신실한 열정에 동참해야만하는 요청을 본다. 달란트 비유 속에서 새 언약 백성은 안일의 삶으로 남겨 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새 언약의 열매를 나타내어야 할 열심 있는 수고를 드러야 할 입장임을 밝힌다. 그런 수고가 없는 언약백성은 타락한 자라는 경고를 던진다. 왜 그런 열심을 요구하나? 거기에는 목적이 있는데 1)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에 대한 풍성함을 주는 수단이고 2) 다음에는 그 수고의 과정에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달아 항상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함이고 또 상급을 약속함으로써 진실한 열심을 통해 주인의 즐거움에 도달케 하려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태는 새 언약 백성으로의 지상사명에 대한 순종의 중요성을 돋보였다.

3) 누가신학 속에 나타난 새언약의 특징-

우리는 앞서 말한대로 언약 체크리스트를 따라 누가의 신학이 표현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새언약의 특징을 살핀다.

1. 저자는 옛 언약의 연속성을 말하는가? - 누가는 그리스도의 일생을 역사적으로 서술하면서 새 언약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옛 언약의 성취자였음을 분명히 한다. 그 예로 우리는 누가복음의 첫 장 서론에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 사실을 증거한다.

1) 그리스도인의 은혜 (눅 1:26-38)- 본문은 은혜에 관해 무슨 진리를 가르치는가? 첫째, 은혜(8)란 하나님의 선물과 호의로서 값 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그 은혜의 중심은 죄사함이고 다음이 사명이다. 구원에로의 부르심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 거듭나게 하기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한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은혜 곧, 죄사함의 결과로 오는 것이고 사명에로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이루기 위한 은혜이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나타내어야 할 사명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마리아처럼 은혜에서 은혜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둘째, 점진적으로 나타난 은혜이다.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32)에서 누가는 일찍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다윗에게서 더 구체적이고 점진적 실체로 나타났다. 다윗이 나단을 통해 받은 약속대로 다윗 왕위가 영원히 세워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이 마리아에게 이루어졌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언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민족적 왕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말한 것이다. 셋째, 말씀으로 성취되는 은혜이다.(37)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진행하고 말씀으로 성취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밖에 없다.

2) 사가랴가 받은 은혜 (눅 1:67-80) - 불신앙 때문에 일시적으로 귀머거리와 병어리가 된 사가랴가 받은 계시는 무엇인가?
 첫째, 그리스도의 구속이었다. 마치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사흘동안 눈 먼 사람이 된 것처럼 그는 구약에 나온 구속에 관한 진리를 깨달았다. 구약에 나타난 많은 상징과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됨을 깨달았다. 이것은 그가 받은 특이한 은혜이다. 둘째, 그는 성령 충만한 체험을 했다. 64절에 혀가 풀리면서 그리스도를 찬송했다. “성실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75)”는 사가랴의 깨달음은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한 언약이다. 죄에서의 구원인 속량으로 성취되는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짐을 알고 요한이 그를 증거하는 자로 일할 것을 예언한다. 초점은 요한이 아니라 그리스도였다. 언약의 당사자인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후에 성결과 의로 두려움없이 주를 영원히 섬기는 구원의 은혜를 얻는다. 이것이 성결과 의와 평강의 입맞춤 그리고 공의와 사랑의 입맞춤이다. (시2:)

3) 그리스도의 탄생 (눅 1:32) -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탄생 계시는 이미 구약에 약속된 일의 성취임을 말한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눅1:32)라고 선언했다. 첫째, 탄생하실 분은 큰 자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분 곧, 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제 2위 독생 성자께서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이다.(요1:1)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창3:15) 성부의 구속을 모두 성취하실 분이시다. 둘째, 그는 겸손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 최대의 겸손인 그의 죽으심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이 암시 되었다.(창3:15) 그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의 구속을 이루실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 안에만 구속이 있다. 셋째, 다윗의 위란 메시아의 왕권을 가리킨다. 일찍이 성전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다윗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시 되 사사시대처럼 혼란한 나라가 아니고 세상을 다스릴 절대 왕권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1200년 후, 다윗 가문의 한 작은 여인을 통해 이루신 것이다. 신분과 사역과 목적이 예수님의 생애에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자는 그와 함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4) 첫 아들 (눅2:7) -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눅2:7)는 말씀에서 누가는 왜 그리스도를 첫 아들이라 불렀는가? 첫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으로 태어나셨음을 알리기 위함이다. 누가는 첫 아들이란 말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음을 알리면서

대속물로 구약 초태생의 죽음을 환기시켰다. 출애굽시 이스라엘이 초태생의 죽음으로 살아난 것처럼 그리스도는 초태생의 실체가 되신다. 구원의 초태생들인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친히 유월절 어린양이 되셨다는 것이다. 둘째, 초태생이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서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초태생이 되셨다. 그래서 바울은 소명, 칭의, 영화로 나아가는 구원이 만아들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고 증거했다.(롬8:29) 진정 그리스도만이 첫째 부활 열매가 되시고 그 속에 들어있는 우리도 그 첫열매에 참여하게 하셨다. 바로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되었기에 거기서 나온 모든 유익을 누릴 수 있다.

2. 저자는 새언약의 불연성을 말하는가?

누가는 그리스도의 최초 공설교에서(눅4:) 그의 해석을 돋보인다. 이사야 63장에 나온 메시아의 활동이 자신에게 성취되었음을 선포 하심으로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과 함께 그 독특성 곧, 그 불연속

성을 말씀하시기를 바로 자신이 그 메시아이고 바로 이 때가 종말론적 시대로 희년이 성취된 시대라는 것이다. 지금이 마지막시대이고 언약의 절정을 밝히 나타내는 시대임을 주장하셨다. 정말 그 후 그리스도는 3년간 공사역에 그 증거를 보이심으로 자신의 메시아되심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그의 승천 후 사도들을 통하여 메시아의 사역을 성령 안에서 계속 다양하게 보이셨다. 그가 하신 모든 사역은 언약의 연속성의 지평 위에서 옛 언약과 비교될 수 없는 불연속적 사역 곧 준비된 구약의 모든 언약, 창3:15절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그리고 다윗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된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기에 절대성을 가진다. 창세 이래 살았던 모든 인류, 누구든지 그에게 오직 앎는 자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알고 보면, 구약의 모든 언약 백성도 장차 성취될 그리스도를 내다 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것이 여호와와의 경외심, 율법의 순종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장차 나타날 새 언약의 머리를 양모 형태의 믿음으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을 나타냄으로 새 언약의 영광에 참여한 것을 증거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

의 모든 언약 백성들은 새언약의 머리인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아 그 열매인 하나님의 형상, 의인신을 나타내며 나아가 그 형상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이다. 옛 언약에 속한 자이지만 새 언약의 맛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경험적으로 누리고 열매를 나타낸 것이다. 아브 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의 의는 모두 그리스도의 의에 속한 것이다.

3. 저자는 하나님의 형상의 열매인 의인신을 보이나?

언약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곧 구속적 윤리인 의인신의 열매로 생활과 활동 속에 적용되었다. 그 증거가 아래 두 구절에서 발견한다.

1) 탐심을 이기는 길 (눅11:1-15) - 주님을 따르는데 제일 큰 장애물은 욕이다. 이 욕을 주님은 종종 자아, 탐심 그리고 욕심으로 표현하셨다. 그래서 주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15)고 선언하셨다. 첫째, 인간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탐욕은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대

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에 떨어지게 한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우상숭배라고 단정했고, 야고보는 모든 죄와 사망이 바로 이 욕심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이 탐심이 성령의 역사를 막고 거역하게 하는 교활한 기술을 가진다. 둘째, 때로는 경건의 모습을 띤 탐욕 곧, 외식으로 나타났고, 열심이란 가면을 쓰고 나타났다. 이 탐심은 모든 신자 속에 깊이 뿌리박힌 것이기에 죽음이 아니면 거기서 자유하지 못한다. 이것과 싸우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탐욕이 자기를 사로잡는다. 셋째, 이것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에 대한 부요를 갖는 길뿐이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그의 말씀을 최고 권위에 둘 때만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탐욕을 물리치는 일에 진력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사라지게하고 사탄의 형상을 나타내는 죄인의 탐욕은 의인신 대신 불의, 광포 그리고 불신실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주님은 바로 그 탐욕의 근원인 인간의 부패성을 제하여 오신 것이다. 그 정과 욕심을 단번에 십자가에 못박으신 것이다. (갈 5:)

4. 저자는 새언약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의식하는가?

5. 저자는 새언약의 과거 현재 미래의 관계를 설명하는가?

아래 본문에서 우리는 새 언약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것은 성경을 관통하는 구속 흐름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리스도의 이해를 관찰하는 것이다.

1) **하나님 나라 (눅19:1-38)** -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보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 다하니” (38)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첫째, 창세 전과 미래의 영원계를 보지 못한 신자는 현실에 임한 하나님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모순과 갈등을 느끼며 영적긴장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그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그 나라 맛을 보고

있음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 나라는 육 안으로 볼 수 없으나 그 증거는 볼 수 있다. 삼층천을 본 바울은 가시를 가졌어도 그것을 지배하는 더 강력 한 천당의 임재를 누렸다. 그래서 가고 싶은 것이 그의 소원이나 교회를 위해 여기 있는 것이 더 좋다 고했다. 둘째, 그가 맞본 하나님 나라는 크게 두 요소가 드러났다. 그 때 무리들이 부른 찬송가사에 나온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돌아가는 자리라면 그 곳이 하나님 나라이다. 먹으나 마시나 영광을 주께 돌리는 마음이 있다면 복되다. 다른 하나는 평화이다. 그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평강이며 형통이기 때문이다. 마음의 평안이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의 맛이다. 그 나라의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에게만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가 주시는 평강에 잠겨야한다.

그리스도는 주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 나라 곧 언약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온 세계와 만물을 모두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란 뜻이다. 그는 일반은총 영역을 자기 백성의 구속 성취 곧 하나님의 형상회복을 잘 섬기도록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요약하면 누가는 은혜언약의 지평 위에 펼쳐지는 새언약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고 그 성취를 하나님의 형상회복의 열매인 구속적 윤리, 위인신의 나타남을 보였다. 그래서 참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비유와 상황 속에서 증거한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받아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증거들이라 할 수 있다.

2. **요한신학 속에 나타난 새언약의 특징** - 요한은 하나님의 형상회복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즉, 거듭남으로 시작됨을 분명히 말하고 신자 개인의 삶에 일어나는 구속의 윤리의 쟁점이 되는 빛과 어두움, 생명과 사망의 대칭 개념은 요한의 신학 속에 보여지는 독특한성이다. 그래서 요한은 다른 복음서 보다 새언약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새언약의 책이다. 그의 복음서와 서신서는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1. 그는 그리스도의 기원을 태초로 올라가 생각한다.

천상회의가 포함된 그 태초에 계신 말씀이 성육신하여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었고, 새언약의 핵인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보인다.

2. 그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구속과 언약 곧, 하나님의 형상회복을 다 이루시고 새언약 백성에게 거기에 근거를 둔 의인신이 나타나도록 성령을 통하여 일하심을 보이셨다. 영과 육의 같등이 항상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에 한번 부여된 기름 부으심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이미 새겨진 법과 변화된 마음을 최상의 방법으로 지키시고 원수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신다. 바로 이 기름 부으심은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일하심이다. 그가 성령 안에서 모든 진리의 세계로 언약 백성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형상, 의인신을 나타내심을 그 분의 사역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3. 그 일을 위하여 창조시 영광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을 통하여 이루셨다. (요 3: 요일 2:) 그래서 사역의 인도하심을 사도들에게 맡기실 때 주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라고 명하셨다. 그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 완성된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큰 것에 감동이 되어 추상적인 것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주님은 그 나라의 열매인 성령 안에서의 의, 희락, 평강을 누리게하심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회복의 요소인 의인신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의 서신서에서 새언약 절정의 그림인 의인신을 세상에서 보존할 것을 가르친다. 온갖 원수세력이 밖에서도 있으나 안에 있는 욕의 부패성 곧, 자기 속의 우상에 대한 사랑을 중단하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하나님의 형상회복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에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면목이다.

4. 그것을 이를 구체적인 방법이 그리스도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이것은 회개와 믿음의 다른 표현이다. 믿음에서 생활로 나가는 길은 새언약 백성의 열매인 하나님의 의인신이 들어나게 하심인데 그 능력이 주님과 의 연합에 힘씀에 있다고 한다.(요 14-15 장).

5. 생활의 열매는 사랑 안에서의 진리,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일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6. 새언약 백성은 사랑과 순종으로 나타나야한다.

7. 요한계시록의 새 언약의 승리생활 - 이와같이 우리는 사도 요한 속에 계시된 새언약의 특성을 살필 때 언약의 주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일에 초점을 맞추심을 보았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회복이 새 언약에서 성취되는 그 영광을 바울의 신학 속에서 더욱 더 분명히 본다.

3. **바울신학 안의 언약의 특징**- 바울의 신학과 신앙은 12 권의 서신서를 통하여 보여진다. 그중 다메섹의 체험이 새언약 백성에 들어가는 체험으로 그 후 전도사역과 그 사역 속에 서신서를 보내면서 아래 책에 나타난다.

그 중 로마서의 구조 구원과 행함과의 관계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보여진 두 언약의 대조를 통하여 새 언약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원사도인 베드로의 신학을 간과할 수 없다. 그는 새 언약의 영광을 어떻게 보이는가? 베드로서신을 통하여 우리는 몇가지 주제를 생각한다.

4. **베드로 신학에 나타난 언약의 특징**

베드로 사도는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뀌어지는 오순절 성령강림사건 현장에서 최초로 쓰임 받은 새언약의 도구였다.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설교를 통하여 그는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것이 고 성령의 부으심도 구약에 약속된 것의 성취임을 증거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이 메시아를 죽이 는 아이러니를 지적하며 그들의 죄를 책망했다. 그 일로 3000 명의 새언약 일꾼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룰수 있었다. 그 후 초대교회의 원사도로서 기둥역할을 한 그는 옛언약과 새언약 간의 연속 성과 불연속성의 갈등으로 잠시 방황할 때 자기보다 늦게 사도된 바울에게 책망을 받은 일도 있었다. 이후 그의 서신 베드로 전후서에서 우리는 그의 신학 속에 새 언약의 독특성을 5 가지 확신들을 본다.

1.첫째, 그는 그리스도인의 새언약 백성의 신분을 명시한다. 그는 언약의 절정인 그리스도 안의 부자 관계로 연합되었음을 보이며 새 언약 백성에 대한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절대 복종 관계 즉 주종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1) 그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벧전 2:1-4) 사도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신령한 집이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새언약의 성전, 제사장, 제물도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두 가지를 힘써야한다. 하나는 버리는 일이다. 1 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사모하는 령이다.(2) 여기 순전한 신령한 젖은 성경말씀을 가리킨다. 이런 생활은 한마디로 우리의 부패성인 육과 싸우는 일이다. 육육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은 말씀을 깨달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성경 속에서 내게 해당되는 꿀과 젖을 맛보기까지 해야한다는 것이다. 신령한 일은 처음 과 과정과 결과가 성령으로 되어야만 한다.

2) 그는 새 언약 백성이다. (벧전 2:5-8) - 사도 베드로는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격을 자세 히 보여주다. 첫째, 교회는 새언약 위에 세워진다. 베드로가 본 교회는 구약 언약에 근거를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말한다. 시온에 둔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는 언약을 그의 피로 성취하셨다.(6)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 곧,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 새 언약 위에 세워진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다. 둘째,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시다. (6) 성전으로 비유된 교회의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인 성경을 가리킨다. 바울도 에베소서 2: 20 절에 같은 내용으로 말한다. 이것은 교회의 머리와 기초는 그리스도란 뜻이다. 그리스도가 중심되지 않는 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까닭이 교회의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치는 돌이 된다.(7-8) 신약 교회는 새 언약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한 삶을 살아간다.

3) 그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벧전 2:9-10) - 그리스도인은 새 언약 백성의 신분을 가지며 그에 따른 사명을 위해 사는 자임을 베드

로는 자세히 설명한다. 첫째, 그는 택함받은 족속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이다. 둘째, 왕같은 제사장이 다. 그리스도 안에 서의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을 받아 이 세상에서 메시아적 사명을 이룰 자 이다. 이것은 창조 때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문화적 사명의 실체인 구속적 사명을 다해야만 하는 사람들이란 뜻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덕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한다. 세째,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부르 셧기에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위하여 하나님과 같은 거룩을 가져야할 사람들이다. 이 거룩을 이루 게하려고 하나님은 고난이란 과정을 통한다. 성령은 그 속에서 기어코 그 목표를 이루실 것이다.

4)그는 하나님의 종이다. (벧전 2:11-17) -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한다. (11) 거듭난 깨끗한 영혼을 더럽히려는 원수는 언제나 우리 속에 있는 욕이다. 이것과 늘 싸우는 생활에 집중하는 것이 신자이다. 이것은 한 마디로 성령의 일을 생 각하는 것이다. 둘째,

적극적인 선행을 나타내어야 한다. (12-15) 개인의 경건은 이웃이나 어떤 제도 속 에서도 선행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존중하고 인내함으로 자기의 자리를 성실히 지켜나가야한다. 먼저 할 일을 먼저하고 겸손히 섬길 때 주께서 기이한 손으로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의 말을 막아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 까지 나가야한다. 세째, 이웃을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16-17) 그 경건은 이웃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대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마치 하나님에게 하듯할 때 주님은 일하신다. 야곱이 은혜받은 후 에서 를 만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다고 말한 것 같은 일이 생긴다.

5)신자의 지위 (벰후 1:1-7) -그리스도 안의 신자는 어떤 자리에서야 하는가? 첫째, 신자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사람들이다. 하나님만이 생명과 경건의 원천이기에 그에게 소속될 때 그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1-4)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마귀같은 나 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하신 그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할 뿐이다. 둘째,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도는 7 덕이라고 말하는 믿음, 덕, 지식, 절제,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을 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다고 가르친다. 이처럼 절대 은혜는 우리의 최상의 노력과 헌신을 요구한다. 세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으로 부름받았기에 마침내 의와 덕과 사랑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닮아 모든 방면에 그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이 땅위에 표현된 것이다.

6)그리스도의 대속(벰전 2:22-25) - 2000 년전에 단번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대속은 어떤 고난 이었습니까? 첫째,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언행심사에 조금도 죄가 없으신대도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신 고난이였습니다. (22)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는 대속자의 자격을 충분히 가지신 것입니다. 둘째, 악으로 조금도

응수하지 않으셨습니까.(23)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합니다.
대속의 과정에서도 완벽한 대속을 이루어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완전히 받아 처리하셨습니다. 성도의 어떤 죄 처리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째, 그 대속의 효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24-25)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자가 되었기에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재적인 치유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과 병을 모두 담당한 사실이 그를
믿음으로 나타나도록 되어있습니다. 길 잃은 양인 우리는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치료의 은혜를 누립니다. 주의
대속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7)세례의 의미 (벧전 3:18-21) - 홍수 심판에서 방주안에서
구원받은 노아 식구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자는 참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의 실체를 설명한 세례에 관한 사도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첫째, 구원의 표입니다(18-19)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자기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완벽한

공로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든지 영원한 구원의 효력을 갖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사는자는 큰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까닭은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육체의 더러움을 제한 것이 아닙니다. (21) 세례란 씻는 의미를 가지는데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한 영혼의 더러워짐을 씻는 죄사함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시기만하면 그 세례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믿음으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째,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확증입니다. 사도는 성령 세례를 정의하기를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의 확증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인치심 받았기에 지울 수 없고 뺏앗길 수도 없다.

8)하나님을 위한 삶 (벧전 4:1-6) - 사도는 계속 나그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또 세가지를 행하라고 강조한다. 첫째,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지해야 한다.(1) 그리스도의 고난이 공로이지만 그리스도인 삶의 본도된다. 그것을 갑옷으로 삼으라

하심은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신 것처럼 살겠다는 목표와 방법으로 살아 갈 때 기이한 은혜를 누리라는 것이다. 둘째,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3) 사람의 정욕은 사탄의 유혹에 쉽게 빠져 극한 방탕에 떨어지게 한다. 이것은 모두 우리 속에 있는 욕에서 나온 산물이다. 이것을 경계해야한다. 세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이것은 옛날 이방인이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던 것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인 의로움과 긍휼과 신실함의 열매를 나타냄을 가리킨다.

2.둘째, 그는 성경의 신적권위를 보임으로서 새언약의 근거가 기록된 성경임을 주장한다. 이것이 베드로의 성경관이다. 바울처럼 그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드렸다. 이것은 새언약의 기준이고 지침이다. 그 권위는 변화산의 재림의 영광을 목격한 황홀경의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성경관을 아래와 같이 보여준다.

1)성경을 주신 이유 (벧후 3:1-17) - 왜 하나님은 성경을

허락하셨는가? 첫째, 하나님의 계시를 잘 기억하게 하려고 주셨다.(1-2) 선지자의 예언과 사도들이 전한 말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진다. 성령받은 신자들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계시의 빛 안에 거하는 일이다. 교묘한 말로 신자를 유혹하는 때에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구하며 견고히 세워준다. 성령으로 깨달은 계시가 신자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단 교훈을 방어하기 위하여 주셨다.(3-5) 여기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란 이단을 가리킨다. 그들은 주로 창조도 재림도 부인하여 신자를 넘어뜨린다. 그러므로 성문화된 계시를 주셔서 그 위에 견고히 서서 항상 빛아래 살게 하셨다.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이 신자의 제일의 일이다. 셋째, 심판의 기준으로 주셨다.(6-7) 성경은 분별의 기준도 되지만 최종 심판의 도구이며 기준이다. 창조의 도구인 성경은 심판의 도구도 된다. 성경을 사랑하고 그 위에 사는 자는 그만큼 복되다.

2)성경은 더 확실한 예언이다. (벧후 1:16-21) -진리는 사건을 통해 표현되었다. 변화산의 놀라운 경험은 성경의 증거보다 약한

것이기에 사도는 우리의 관심을 성경으로 이끈다. 첫째, 그의 크신 재림의 위엄은 귀한 것이다. 베드로 생애에 일어난 그 경험은 그의 확증의 뿌리였다.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진짜로 둔갑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이 시대에 사도가 본 경험을 통해 그 실상을 아는 것이 귀하다. 둘째 그러나 성경의 증거는 그 보다 더 탁월하다. 재림의 영광을 본 경험이 무력할 수 있어도 성경의 예언은 영원하고 세상이 변해도 살아있다. 그래서 위대한 경험보다 성경의 조용한 소리가 더 권위가 있다고 사도는 주장하며 신앙을 성경에 근거하도록 이끈다. 이것은 성경은 성령이 친히 기록한 사랑의 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모든 삶이 성경에 뿌리를 내려 살아야 한다.

3.세째, 제사장으로서의 삶 곧 하나님의 형상인 의인신의 윤리생활을 강조한다.

1)사랑할 이유 (벰전 1: 22-25)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왜

뜨거운 사랑을 요구하는가? 첫째, 깨끗한 영혼을 가졌기 때문이다.

(22)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죄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깨끗한 영혼을 가진다. 그 영혼은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사도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한다. 둘째,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23)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용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성숙하게 하신다. 그 말씀은 씨앗처럼 무한한 생명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 생명력은 관계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한다. 선진들이 모두 이 사랑으로 세상을 이겼다. 세째, 영원 속에서 살기 때문이다.(24-25) 성령으로 시작하여 그 큰 사랑을 체험한 성도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영원세계에 발판을 두고 나아가기 때문에 별다른 삶을 살 수 있다. 사망의 골짜기에도 찬송하며 걸으며 홍수가 몰아쳐도 평안을 가지며 사자 입 앞에서도 감사 기도할 수 있게 했다. 그 사랑 때문에 펼쳐지는 복된 세계를 누리는 것이 새언약 백성이다.

2)부부관계의 중요성 (벧전 3:1-7) -새 언약 백성의 열매는 먼저 가정의 기본 단위인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 나타난다. 어떤 모습인가? 첫째, 남편의 사랑으로 나타난다.(7)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이 남편을 통해 나타나려면 성령과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가능한 것이다. 베드로 역시 그 표준을 변치않고 지식을 따르라고 가르친다. 아내의 언약을 알아 그에 맞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둘째, 아내의 복종으로 나타난다.(1, 5-6) 비록 안 믿는 남편을 두 었다 할지라도 그의 선행의 본을 보여 주께로 돌이키게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능은 그리스 도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행 16:31) 주님은 가정을 존중히 여기신다. 오늘 날 처럼 가정의 기본이 제도적으로 무너진 때에 구속 위에 가정을 세워야합니다. 이것이 사는 길기 때문 이다.

3)복의 근원으로서의 삶 (벧전 3:8-12) -사도의 마지막 권면은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자세히 가르 친다. 첫째, 긍휼히 여겨야한다. (8) 먼저 형제끼리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라고 한다. 이것은 사랑의 부드

러운 방법으로 악한 자를 용납함으로 덕을 세우는 일이다. 끈고할 때 자주 일어나는 인색한 마음을 극복 하려면 이것이 강조되어야한다. 둘째, 악인에게 복을 비는 생활을 힘써야 한다.(9) 나아가 세상의 악인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이다. 일찌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사도는 그의 편지에 다시 강조한다. 심판 받을 세상 속에 살지만 완성의 그 날까지 성도는 복을 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혹시 그들 속에 회개하고 돌이킬 자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이 복음 증거의 또 다른 방법이다. 세째, 주께 인정을 받기까지 선을 따라야 한다.(10-12) 무엇보다 개인의 경건을 지키기 위하여 말을 조심해야 하고 선과 화평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인정하심 만이 우리 마음을 복되게 하기 때문이다.

4)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라 (벧전 3:13-17) - 그리스도인의 세상 살이는 의를 위한 고난 당함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거기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만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어야 한다.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첫째, 주권

인정으로 시작해야 한다.(15) 정상적 그리스도인 삶의 기준이 그의 주재권을 갖는 것이다. 고난을 당할 때 제일로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란 뜻이기에 모든 생활의 기초가 되는 고백이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그의 힘과 그의 반석으로 삼았다는 뜻이다. 둘째, 선한 양심을 지켜야 한다.(16) 주재권이 확인된 후, 우리는 선한 양심의 상태를 살펴야 한다. 거기서 겸손과 존중심이 생겨지기 때문이다. 세째, 의를 위한 고난을 각 오해야 한다.(14) 잘못하여 당하는 고난은 회개해야 하지만 억울한 고난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임으로 원수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인내하여야 한다. 의를 위한 고난은 진정 복이 된다.

5)고난이 복이다.(벧전 4:12-13) -우리로 죄를 짓게하려고

사탄에게서 오는 유혹과 달리 시련은 우리를 연단하여 성숙한 사람이 되게하려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의 고난에 관한 진리를 이해해야 한다. 첫째, 불시험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신앙 생활에 당연히 찾아오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맹렬한

시험이 몰려와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모두 이길 수 있다. 둘째 그 때 우리는 기뻐해야한다.(13)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 자체가 복이고 하늘의 상급이 준비되었기 때문이다.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관문이기에 복된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고난 속에서도 오아시스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세째, 영광의 영이 나타나신다. 고난 당할 때 찾아오는 기쁨은 영광의 영의 역사이다. 고난 당하는 광야 교회 위에 영광의 구름 기둥이 늘 머물러 그들을 보호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듯이 성령은 항상 우리 위에 운행하여 아름다운 세계를 경험하게 하신다.

6)하나님의 뜻을 따른 고난 (벧전 4:14-19) -고난의 유익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찾아온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 고난이 될까?
첫째, 하나님의 집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앎으로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야한다. 죄로 인한 고난은 회개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은 감사함으로 견디어야 한다. 그 때 주님은 그 유익을 알게하신다.(17) 둘째, 고난 중 선을

행해야 한다.(19) 그런 고난이라하여 쉬운 것이 아니다. 물려오는 유혹 속에서도 선을 행하여야 한다. 선행이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고난 중에 악을 행하기 쉬운 때에 선을 행할 때 찾아오는 유익은 성령의 열매를 맛보는 것이다. 세째, 창조주께 우리 영혼을 맡겨야 한다.(19) 이 고난의 승리의 비결은 모든 짐을 주께 전적으로 맡기는 일이어야 한다. 창조주만이 주권자가 되시기에 영혼을 책임지실 수 있으시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가 큰 신앙의 도약의 기회가 된다.

7)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 (벧후 3:17-18) -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시작하여 그것으로 마치면서 다음 세가지에 집중하게 합니다. 첫째,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권한다. 거짓교훈은 항상 우리로 은혜에서 벗어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행위 구원 혹은 자력종교의 자리로 전락시키신다. 그리스도의 단번에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일을 교묘히 방해한다. 이것은 도덕적 타락의 시작이고 그것보다 더 근원적이다. 영적 타락은 마침내 우리를 망하게 한다.

둘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기를 권한다.. 이것은 우리로 행위냐 은혜냐 혹은, 자기 이냐 그리스도이냐, 혹은, 율법이나 복음이냐 혹은, 세상 방법이나 하나님의 방법이나로 구분시키신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베드로 역시 오직 은혜의 구원 오직 겸손의 방법만 이 나아갈 길이를 확신한 것이다. 세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나기를 권한다. 이것은 모두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 곧, 영생 안에서 사는 삶을 가리킨다. 혼탁한 우리 시대에 이런 에덴 동산의 즐거움을 붙들어야 한다.

3. 그리스도의 고난의 본 (벧전 2:18-21) 또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정상 생활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한다. 첫째, 까다로운 주인에게까지 순종하되 주님에게 하듯하라고 하신다. (18-19)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 나라의 의와 사랑과 진실은 이런 순종의 마음을 통하여 세워진다. 둘째, 잘못하여 받는 고난은 회개해야 한다. (20)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를 깨달을 때 마다 미루지 말고 즉시 회개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 가 원하시는 제사이다. 세째, 애매한 과난을 당할 때 도리어 찬송해야한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복음은 언제나 십자가의 본을 따를 때 부활의 강력으로 나타난다. 처음은 약해 보이나 이후는 영광이 찾아온다.

네째, 거짓 교훈을 언제나 새 언약 백성의 놀라운 변화생활을 어거러지게 하기 때문에 거절해어된다고 말한다.

8)타락의 위험성 (벧후 2:17-22) - 첫째, 타락은 외식에서 시작한다.(17) 사도는 여러 비유를 통해 외식자의 위험성을 지적한다. (17) 물없는 샘처럼 그는 진리를 잃어버리고 걸날림으로 살아간다. 헛된 자랑으로 자기의 교만을 나타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처럼 마음에 정함이 없다. 자신이 약할 뿐 아니라 약한 자를 쉽게 유혹하여 멸망케한다. 육체의 정욕을 기본으로 살기 때문에 마침내 그리스도를 떠나간다. 둘째, 그리스도를 아는 재미를

보았으나 일시적 유혹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마침내 어두움에
엎메인다. 사실상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경험이 없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타락자는 시작을 안한 사람일
수도 있다. 이것은 영적 혼란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세째, 처음
보다 더 심한 결과가 찾아온다. (20-22) 개와 돼지 처럼 옛 죄를
끊지 못하여 그 노예로 살아간다. 일곱 마귀가 찾아와 지배하여
돌이킬 수 없는 큰 위험에 들어간다. 신자는 가장자리에 서있는
곡예사와 같은 삶을 경계해야한다. 넉넉한 진리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9)진리에 선 자가 할 일 (벧후 1:12-14) - 베드로 사도는 진리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의 방법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첫째, 이미
아는 진리를 기초로 성장하라고 한다.(12) 이미 알고 서 있는
진리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 역사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에게 영생이고 그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진리와 영생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영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자의 성장은 처음받은 진리를 더함이나 변형이 아니고 그 위에 서서 올라가는 것이다. 둘째, 생각의 기능을 사용함이 필요하다. (12-14) 영의 거듭남은 우리의 생각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그때 육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어진다. 생명과 사망은 바로 우리 생각의 기능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생각나게 하려고” 미리 말하고 가르쳤다. 놀라운 영적 경험 역시 모두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 진리의 삶은 철저히 계시에 뿌리를 둔 것이고 열매이다. 생각 자체가 진리화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 그 길로 나가야 한다.

10) 믿음에 굳게 설 이유 (벧전 5:12-14) - 첫째, 마귀의 맹렬한 공격 때문이다. 우는 사자 처럼 들삼킬 자를 찾는 때에 우리는 믿음에 서야 한다. 이것은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을 알고 겸손하라는 뜻이다. 참 믿음은 언제나 겸손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둘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선진들이 받은 고난처럼 우리역시 그 시대를 통해 몰려오는 내외부의 공격과 맞서야한다. 오직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세째, 고난당하는 자에게 승리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10)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간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다.

11)장로가 받을 지침 (벧전 5:6-11) 사도에게 기원을 둔 장로 직은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기둥과 같다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장로 위에 세워진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베드로 자신이 장로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 사도는 교회 장로에 관해 무엇을 가르치는가? 첫째, 자원함으로 섬겨야 한다. 부득이함으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소명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자원함은 하나님의 뜻인 계시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사람으로 나온 것은 모두 무너지고 오직 계시로 인한 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둘째, 본이 되어야한다. 바울의 가르침 처럼

베드로도 본됨을 강조한다.(3) 주장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으로 나타나야한다. 젊은 자들이 순복할 수 있도록 모든 방면에 겸손과 순종으로 해야한다. 세째, 영광의 면류관이 약속되었다. 작은 목자로서 목자장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약속된 상급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열심을 갖게한다. 이 경주에 힘써야한다.

5.다섯째, 완전한 새언약의 성취인 재림의 때를 준비하라고 가르친다.

1)재림을 준비하는 자세 (벧후 3:11-13)-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둔 신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하는가? 첫째, 홀연히 오는 재림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10) 예고없이 임하는 도둑처럼 찾아 온다. 평상시에 준비와 훈련이 없으면 당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안의 성령은 급히오는 큰 긴장 속에서도 잘 대처하도록 지혜를 주신다. 영적 긴장을 잃지 말아야 한다. 둘째,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한다.(11) 재림의 사건을 앞둔 신자는 무엇보다 경건 곧, 거룩한 행실을 힘써야한다.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 거룩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이 거룩 함은 거룩한 말씀을 따를 때 얻어지는 열매이다. 세째,

간절히 사모해야한다.(12) 그리고 신자는 현실 생활에서 그를 사모해야한다. 소망을 그에게만 두었기 때문이다. 장차오는 주님을 맞을 자처럼 근신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2)재림을 맞을 준비하라 (벧후 3: 14-16) - 연이어 사도는 재림을 맞이할 성도의 바른 자세를 가르친다. 첫째, 주 앞에 온전한 자로 나타나야한다. 칭의를 얻은 성도는 온전한 의의 사람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날마다 자신을 깨끗케해야한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자로 나타나기 위하여 성도는 기도와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야 한다. 거룩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관점에서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어 주신다. 둘째,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야한다. 야고보도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부족함이 없는 연단된 인격이 된다고 말하며 이것은 인내로 나타난다. 한마디로 오래 참는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세째, 성경을 바로 알아야한다. 성경에 무식한 자란 성경의 진리를 인간 욕심 중심으로 풀거나 억지로 푸는 사람들 곧, 이단을 가리킨다. 베드로는 그 계시를 바울의 글로 보고 있다. 재림을 맞은 성도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3)종말시대의 지혜 (벧전 4:7-11) - 만물의 마지막을 의식하는 사도의 때는 우리가 사는 종말시대를 지칭한다. 이 때 우리가 할 일에 관한 사도의 지혜를 듣는 것이다. 첫째, 근신해야한다. 근신이란 깨어 있는 생활 곧, 절제하는 생활을 가리킨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 생활에서 나온다. 우리의 육은 게으르고 방탕을 추구하기 때문에 항상 경계해야 할 제일의 요소이다. 이 근신은 성령께서 우리 자신과 세상의 실상을 알게 하심으로 나타나는 반응으로 우는 사자 같은 마귀의 시험 과 천사 같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한다. 둘째 뜨겁게 사랑해야한다. 종말의 고통하는 때에 극도의 이기 주의로 치우치기 쉽다. 여기서 모든 악한 사상 즉, 뉴에이지, 포스트 모던니즘, 물질주의 그리고 쾌락주의로 달려가기 쉬운 때에 뜨거운 사랑이 이길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그 이웃에게 더 뜨거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이 시대를 이기는 길이다. 세째,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 종말은 우리로 아무렇게나 대충 살게하려는 유혹에 들어가게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인께 맡은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야한다. 물질, 시간, 건강, 재능, 직장 그리고 가정은 모두 우리의 청직이 분야이다. 주인이 당분간 맡긴 일을 잘하여 착한 종이라는 평가를 받아야한다.

4)하나님의 크신 사랑 (벧후 3:8-10) - 창조의 사랑은 섭리의 사랑이며 그리고 구원의 사랑으로 나타난다. 어떤 사랑인가? 첫째, 하루가 천년같이 여기는 참음과 견디시는 사랑이다.(8) 단기적인 사람은 급히하거나 치우고 하려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견디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우리가 받은 구원 역사가 바로 이런 영원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견뎌는 우리에게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와야한다. 둘째,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는 신실함을 보이는 사랑이다.(8) 오랜 세위를 참다가 병나기 쉬운 인간의 일시적 인내와 달리 하나님은 오래 오래 참으신다. 그래서 시인은 영원하 사랑을 노래했고 모세는 아침마다 그 사랑을 생각하고 즐거워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한다. 세째,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 참으시는 목적이다.(9) 왜 이처럼

인내하시는가? 모든 사람이 참 구원을 받게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이 세상에 참을 수 없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능하다.

5. **히브리서신에 나온 언약의 특징** - 두 언약의 비교를 통하여 새언약의 탁월성을 강조하는 히브리서는 새언약 백성의 불연속적 성격을 강조한다. 만일 이 불연속성을 무시하고 옛언약에 근거를 두는 신앙은 매우 위험한 것을 지적한다. 건물을 짓기전 보조건물이 유용하였으나 완성된 다음에 그것들은 사라져야한다. 그 때 새건물의 유익을 누릴 수 있지만 같은 위치에 주는 유익을 얻는 것은 또 다른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어 새건물의 영광을 누림을 훼손시킬 수 있다.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가 본 새 언약의 영광은 무엇인가?

1) 히브리서 초반부처 두 세계를 대조하여 새언약의 영광스러움을 돋보인다. 이것은 그 아들이 말씀하신 새 시대의 도래는 이미 선지자들이 수없이 말하여 온 종말시대이고 이제는 그림자나 모형이나 상징을 통해 보이던 진리가 직접 그 실체가 오셔서 확증하시고 주장하심을 받아야하는 큰 긴장을 요구하는 시대라는 것이다. 구속이 완성되고 그 언약의 머리는 오셔서

성령안에서 일하시고 옛 언약이 예견하던 모든 원형이 현실화된 시대임을 창조한다.

2) 유대중의자들이 주장하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아론, 제사제도, 성막은 모두 그림자이지 실체가 온 이후에는 단지 증인의 자리에 서야할 것이지 실체가 온 이후에는 모두 잠잠해야할 처지에 있다고 말한다. 만일 이들의 레벨을 그리스도와 동등함 자리로 올리면 그 때부터 그는 새언약 백성의 자리에서 끊어져 항상 초보적 자리에 머물러 유치기적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록 되어있다. 이것이 이단이다. 3) 완성된 언약시대에는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최악이 된다. 그러므로 그 저자는 제사제도의 모든 기구, 성막, 그 직분을 받아 신실하게 일하던 사람마저도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그들은 증인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그리스도의 자리에 감히 설수가 없다. 그러나 인간은 부패하여 새언약의 불연속적 성격을 무시하고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한다.

그런 위험을 벗어나려면 언약의 절정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리 의인신의 열매를 맺히려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야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날마다 그 흔들리지 않은 그 영원한 언약의 나라에 달라 붙는 자는 이런 리한 사칸의 소쇼나 그림을 이길 수가 있다. 구르는 돌은 이기가 기지 않는다. 그러면 완성된 새언약인

하나님 형상회복을 이루는 것은 무엇인가? 언약의 절정으로 나가는 것이다.

6. 언약의 절정 - 임마누엘 - 연합된 공동체

천상회의에서 시작한 구속언약이 어떻게 새언약으로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모두 인류 역사 속에 자상하게 주도해 오셨다. 부자관계의 친밀함과 성자의 영광을 보고 그로 변화하는 그런 구원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의 실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의 온전한 의 인 신을 보고 그와 같이 변화하여 의의사람, 인의 사람, 신실의 사람이 되고 그의 열매를 나타내고 그 영향을 나타내는 자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이 되어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통 속에서 그의 충만한 모든 것을 누리고 증거하는 자로 살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 새 언약 백성의 영광을 미래로만 말하지 않는다. 현재 여기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자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아니, 그것을 더욱 더 강력하게 요구한다. 고후 1: 을 보라.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을 변질시켜 인본주의가 저라잡은 현대 사상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회복 의 모습, 사도요한이 목격한 아버지의 독생장의 영광을 보아 그의 영원한 아들로서의 변화된 형상을 경험하는 것을 본으로 보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한다. 그 때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흘러나는 세계를 보고 은혜와 진리의 사람으로 화하여 현재 있는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드릴 때 일어나는 이 시대의 엄청난 치료의 역사와 저 산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청교도의 이상을 우리 시대에 재현할 수 있는 것이다.

- 1)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고
- 2) 믿음과 행함이 조화를 이룬 상태 곧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상태이다.
- 3) 일반은총이 제 위치를 차지하여 구속을 섬기는 시대이고
- 4) 구약의 상징주의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리에서
- 5) 미래 지형적이거나 현재의 신실한 삶을 살아 그 나라를 누리는 상태이다. 이것을 구속적 윤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 6) 이 언약 위에 에덴동산의 언약의 원형을 복사한 세계가 아니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의 의인신이 충만한 상태가 될것이다. ‘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경력하게 일하시고 계시는 자리이다. 우리의 목회와 개인경건과 가정생활은 이 언약 위에 있기에 흔들리지 않으며 문제가 일어나도 자가 치료의 능력을 통해 도리어 새로움으로 나타나게 될것이다.

오늘날 교회가 이 언약의 절정을 안다면 모두 그것에 자신을 드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를 사게 될 것이다. 저 언덕 위에 영광스러운 언약의 나라의 영광을 보고 그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며 어두운 이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그리로 초청하게 될 것이다.

왜? 우리는 천상회의의 구속 계획의 성취가 얼마나 영화로운지를 보고 항상 그 감격으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조용하나 영광적이고 없는 것 같은데 풍성한 자요, 가난한자 같으나 부요한 자로 낙심한 자 같으나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결론:

그동안 우리는 여러 과정을 통하여 하늘 보좌에서 시작된 천상회의 결정인 구속이 언약의 형태로 발전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은혜 언약인 새언약의 절정이 하나님의 형상회복의 영광임을 성경의 언약 계시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은 여기에 목숨을 걸린 것이다. 그 때 우리 시대는 물질의 노예가 되는 유혹을 극복하고 쾌락주의의 노예에서 벗어나 무너진 가정 속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치료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모두 언약의 원형으로 돌아가 사랑과 복종을 힘씀으로 그의 형상으로 변화받는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한다.

참고도서

언약 비교표

구분	언약달사자	성격	용어	구절	기타
구속언약	성부와 성자	구속- 모든 언약의 원천	삼위일체 (--- 하자) 평화의 의 논 여호와와의 회의	창1:-3: 속 6:13 요 17:1-3	
창조의 언약	하나님과 모 든 창조물	인간의 사명- 하나님 의 성품으로 채워진	영광의 성령 (임 재, 통치, 권위)	창1::2 신	흠으시 는 사
행위언약	하나님과 타 락전 아담	한 계명 (63조항 율 법) - 부정적 조항-	율법의 요구의 성 취 3중 성품(의	창 2:17 3:3 레	
은혜언약	하나님: 영 인의 후손	주권 구원과 연합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예수	창 3:15 갈 4:4	
자연언약	하나님과 노 아와 그 후	일반은총 그 속에 구속의 싸인,		갈 8:20-22	
아브라함 언 약	하나님과 아 브라함	큰 민족, 큰 이름, 복	하나님 나라 보편적 교회	창 12:1-3	

모세의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은혜안의 행함		갈 3:출	유월절, 십계명
다윗의 언약	하나님과 다윗과 그의	은혜가 강조됨	이스라엘의 반석, 아침빛, 아침햇살,	삼하 7:14 23:3-4	왕권 사 9:6
새언약	하나님과 그리스도	옛언약의 성취 불연속성 과 연속성 새창조 하나님의 형상회복	새마음, 새영성령안의 새법 새생명 영원한 속죄 완전한 연합	렘 31:31 겔 37:1-14	종말론적 운리적요소

옛언약과 새언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다이어그램

1. 하나님의 나라 창1:2 왕권, 보좌, 신정
2. 구원의 성격 (창3:15) 하나님의 영광(형상)을 나타내는 목적,
방법 - 중보자 대속주 하나님
3. 구원의 방법 - 행위가 아닌 믿음
 - 1) 에노스 -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창4:28)
 - 2) 에녹- 하나님과 동행함 (창5:24)
 - 3) 노아 -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자 (창6:8)
 - 4) 아브라함 - 창12:1-3 복 (복의 근원) - 그리스도 교회 성령
(엡3:14) (창15:6) 롬4:1-3) 이신득의 - 창 22:12 “ 여호와와
경외심
 - 5) 이삭 (창22:1-7) 창24:62 창26:4-5 하나님은 또 다시 언약
을 체결하셨다. 만민의 복의 원천 (창26:22 복종 (겸손)이 믿
음의 그릇이다.

야곱- 창28:13-15 하나님은 언약을 약속하셨다. (땅, 번성, 임마누엘)

창35:9-15 벤엘의 언약

모세- 두려움, 복종, 중보자의 신앙 (출 19:5-9) 출 34:10-34)

성령의 역사 - 흘으시는 사랑, 너풀거리는 사랑, 운방하시는 사랑이 언역백성에게 임한다.

마침내 성령은 아들에게 인하셨고 오순절에 교호에게 임하셨다.

중생

됨과 행함 하나님의 형상의 나타남

요약-

연속성- 1. 구속은 구속언약에서 온다.

1. 구속은 은혜 속에 나타난다. 은혜는 구속의 성취이다.
2. 구속은 많은 사건을 통해 상징주의와 모형주의로 점진적으로 발전되었다. 비록 많은 다양한 형태로 역사속에

나타났다 할지라도 구속의 본질은 동일하다.

3. Christ is the accomplishment of redemption, it's essence, it's life. " in Christ"

4. New covenant people enjoy in the complete redemption, the restoration of God's image righteousness, mercy and faithfulness.

5. The redemption of O. T and N.T. are same stream, same source, same mediator.

I. The character of discontinuity

1. Discontinuity of redemption between O.T and N.

T comes out of the character of revelation, scatological character, unique character of redemptive method -

shadow and reality, beforehand and fact, prophesy and fulfillment. Without reality, all shadow is emptiness (illusion)

2. The demand of law shall be fulfilled by the power

of Holy Spirit. (Rom 8:4)

3. It is the day that God provide systematically. organized. (II Cor 6:1-2) “ the favorable day, the day of salvation.”
4. There they has spiritual tension (Biblical existentialism), “already but not yet”
(Phil 1:21-23) (Phil 3:12-14)
5. Restoration of God’s image –
righteousness (holiness), mercy and faithfulness (Eph 3:19, 4:24 5:9) –
the totality of the Laws in gospel. By faith to faith, by grace to grace,

@ 언약속의 하나님의 임재

서론: The perspective of the presense of God covered the stream of covenant because the covenant bring about the presense of God, And the presense of God accompanies control and authority to reveal of God's glory.

1. 창세전 - 임재의 원천 하나님의 보좌 - 지혜 (잠 8:29-31)
만물의 중심- 천상의 보좌
2. 창조- 창 1:2
3. 영광의 성령이 혼돈 공허 흑암 위에 운행했다. 신성의 임재가 만물을 지재했다
4.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 (창1:26-27) 하나님의 임재가 인간 위에 있었다.
5. 에덴동산 (창2:8, 겔 28:13-17) - 에덴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다. - 그 땅의 보좌이다.
6. 제단- 하나님이 그의 뱃성을 만나는 장소에 강림하셨다.
7. 예배 - (요 4:23-24)
8. 영적지도력 (족장)

9. 표적 - 구름기둥 불기둥

10. 표적= 만나, 생수, 메추라기, 인격적 보호

11. 성막

12. 성전

13. 메시아의 지위 - 삼중직

14. 그리스도와 교회

언약 속의 믿음과 행함의 관계

Introduction

1 much conflict between faith and life, being and doing, doctrine and Ethic

2. Understanding this relationship helps Christian Ethic

3. The climax is that God is my God and they are God's people. – Immanuel

4. How to attain to christian ethic – covenant ethic

1) the foundation of covenant relationship – Suzarine and vassal – protection and obedience– Lordship – servanthship, father and children, owner and servant and husband and wife – love and obedience on the truth

2) Lordship is revealing the will of God. – the best way – God's ultimate goal – eternal economy in Trinity council – the other expression of redemption

3) Servanthship is revealing the image of God– righteousness, mercy and faithfulness. It is the image and

reality of humble obedience

4) The ethical fruit- self-denial- cross-bearing and following Christ (imitation) – Lk 9:23, Ish 57:15

5) teaching of Jesus Christ – teaching on the mountain (Mt 5:13-14)

6) teaching of Apostles – being and doing – Christian ethic should come out of Christian salvation. Without salvation no biblical ethic. (system of Roman 12:1-2)– it shall be fallen down into artificial ethic – he establishes the human kingdom. So the Apostle stresses to fight with Sarx(sinful desire).

7) Christian target is to enjoy redemptive glory in preent time and in the heaven because they is the covenantal people and covenantal kingdom. (Eph 4:23-24)

Conclusion:

D. The mportance of two relationship in covenant. (indicative and imperative) – for defining Christian actual lifette into

Calvins teaching – humble obedience, self-denial, cross-bearing and participate into the present life, self control acceptance present situation longing the hope. Self-sufficient life in Christ.

- E. The Jews who do not accept Jesus as their Lord redeemer, they can not know the reality of Abrahams blessing. They establish the human kingdom, hypocrite kingdom that was covered by figure of artificial godliness. They follows the Satan temptation like Satanic temptation of Eden-garden and Judah wilderness (autonomous – humanism)
- F. The Christian follows the covenant ethic, the restoration of God's image in every area.

Appendix: Covenantal Life is reformed faith

Considering Reformed Faith (1)

Recently I had heard that Cambodia church needs to be established by Reformed teaching. He wanted to introduce reformed foundation books for the future of Cambodia future. I welcomed his propose with my thankful heart. After I listen to his detailed request I shall cooperate him with wholeheartedly for Gods glory. But I want to share the important theme about Reformed Theology and it's faith.

Frist of all, I want to introduce them according to my understanding that I have learnt at the school and church and my ministry experience.

Reformed Faith is the main theme of Biblical Teaching. t means we should start with assurance of the Biblical view of the Scriptures, 66 books of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 We

want to believe in the view of all the Scripture as the word of God. We want to go until the spot the Scripture go and to stop until the spot the scripture stops. Why? Because we want to obey the teaching .of Scriptures faithfully.

Without Biblical teaching we do not want to follow any things.

Why? Because we admit that now God says to me through the word of Scripture at reading time of Scripture or, studying time of Scriptures or, listening to preaching of pastors. So we love to take personal experimental event in the Scripture, feeling God's love, our miserable sin, and our realizing our mission etc. It other words we enjoy the fire, living water, hammer and fire of Holy Spirit in relation to the Scripture passages. So reformed faith is biblical faith.

Cambodia church has the faith but we find unfaithful attitude to .this assurance. many stream follow to unfaithful teaching by several heresy. Some body give up the traditional faith or, the other compromised their faith in order to get worldly covet.

It is very sorrowful thing. Although we meet some trouble in our lives we should not be shakable in the biblical view. Then we can got much grace from God.

Considering Reformed Faith (2)

I did not have no sufficient time for some reasons, to share the theme, “What is the reformed theology and it’s faith?” As I promised to my readers, I want to think about that theme. I would like to introduce a giant theologian, John Calvin and his golden booklet, “The True Christian Life” to you because I think that the contents reveals the reformed thought and its life very well to us easily, summarily. Basically the booklet was written by John Calvin to teach the French reformed church (1550). I am preparing an educational program for mission field as using the inductive method and deductive method. Continuously I will treat our theme according to the order.

What is the reformed faith? Simply we can say that it is the true Christian life that is depended on the Scripture faithfully. If

anybody be faithful to the Scripture, the Word of God, he is reformed Christian broadly, but he needs to understand what the Scripture say about it. Recently I received a question out of a Cambodia pastor. He wanted to make sure that theme, “Theology is application.” Actually if theology does not influence on the Christian life, it may be in the closed room. Probably the theology may be corrupted. So this proposition is very important in understanding Christian life. But if we do not make sure of reformed application or. biblical application, it shall product the humanism life style or, the artificial external life because the application has not true foundation. So we need to learn what the Scripture say about our life. And also we have to apply the truth in our actual life. Then we can experience the abundant life. Reformed Christian life is to follow the way of the Apostles like Paul and Peter etc. and to imitate to Jesus Christ in his every area. This is the core of theology and its application.

Considering Reformed Faith (3)

Reformed Faith pursues Biblical Revival

Reformed Faith that was begun with Biblical view of the Scripture is not negative life or, old styled thought. It pursues true revival in every area. False revival does not come out of Holy Spirit and the Word of God. False revival stays under humanism or, extreme- humanism (autonomous) that compromised thought with worldview. Finally it shall be destroyed and fallen down into the eternal frustration and the death.

What is revival? Biblical revival brings true repentance and true faith in his heart. Although wonderful emotional events are revealed to them, they want to be examined by the word of God. If he finds unbiblical fruit in his emotional things, soon he shall stop it and keep the self-control life, because he knows that it comes out of the evil spirit. Then what is biblical revival? We

can know it by observing the fruit. What are they? As the Lord pointed it to his disciples in Luke 9:23 “And he said to all,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daily and follow me. “ Here, we arrange three things in our lives, first, we can check up the self-denial attitude. He shall realize that he is so miserable sinner before God. Then he cannot but help keeping the humble heart. Without self-denial, he loses the biblical revival. And also second, we can check up to bear his own cross. It means to live for the benefit of the other. Just like rotting of a wheat grain for production, he wants to bear present trouble on his shoulder for Christ. He shall get the delight of resurrection in his heart. As the church shall be filled with such grace, it tastes the true revival. Third, true revival pursues to Christ and his Word. If the Christian loves to boast himself to the other, it is not the fruit of revival. The revival Spirit shall leave out of him. If the church likes to boast his present pride, it is the evidence of corruption. Presumption

(pride) is like the sin to bow down to the idols.(I Sam 15:23).

What does Cambodia church pursue? Does they pursue biblical revival? Many church leaders and many Christians want to have much money with human method. Although it is true to need money , we should escape the temptation and we should follow biblical revival. The Spirit is waiting for bearing this fruit in our lives.

Considering Reformed Faith (4)

Reformed faith focuses on humility in his every area. It does not come out of man but comes out of God. It means that when God reveals our reality to us, we find both our miserable state and God's greatness in our heart. Then we could not but help being fallen down into the mislabels state that is contrite state that we cannot look up him directly for his holiness.(Ish 15:17) We need to experience two parts in our actual life. As we know, It was the experience of Isaiah before God.(Is 6:1-7) As he look

open door and soon he was fallen down and he shouted out “ I am a miserable sinner. Almost I may die soon for his sin, Then angel brought a burning coal to him and touched it to his mouth, his sins had be gone immediately. Then he have two part experiences, those are; finding holiness of God and his miserable sinful state. This finding before God he got humble heart. We need this heart like Matthew 5:3 remarked to us “the poor in spirit.” Then we shall be changed into the humble heart. This common experience should be happened in every Christian. Then he can live with humble state in the world. Reform Christian life begins with this heart to imitate the holiness of God.

But we can find many Christian misunderstand that humility can come out of himself to them. It shall be an artificial figure that has no real power. So we should be faithful to the revelation, the word of God through reading the Scripture and listening to preaching and teaching of the Scripture.

Considering Reformed Faith (5)

Reformed Faith pursues Biblical Life-changing.

Roman 12: 1-2 says that the Christian should offer his body as a living sacrifice to God by being conformed in his mind.” In a short word, it points the changed -life in his daily life. For this life, his mind should be changed by pursuing the holy, good acceptable will. Here mind means the function of our thought that is related to the heart, the center of our whole man closely. It means that as we think of our present life by depending on the will of God, the Word of God and the direction of Holy Spirit, our whole man shall be transformed into the image of God, the character of God, righteousness, mercy and faithfulness. God does not want that only our name was changed into the new creature, but our real character shall be transformed into the divine character, the changed life now.

So he should concentrate on changing of his thought. In other word he should follow the thinking of Spirit, not the sinful thought. Fighting of his thought is main job in his life.(Rom 8:5) Our thought itself is a changeable function but as the Word of God rules over it, we can follow the will of God by the power of Holy Spirit. So meditating the Word of God is so powerful to control our minds. It is the reality of our changing life.

Reformed faith love to stay this seat, that is the changing thought and changing life in the actual life because it is real struggling event in his thought.

Considering Reformed Faith (6)

Reformed Faith has the ultimate goal as God's glory.

Generally the man wants to shake his banner that he can express his devotion. It means that he wants to devote himself to the ultimate goal in his life. But lots of people have no their ultimate goal in his life although they offer much sacrifice to every area. Why? Because they did not know Christ who is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However the Christian know it in Christ. Reformed Christian also understand the main target that he cast his whole life to.

I Corinthian 10:31 says, "So,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all to the glory of God. ". Here we see two things, those are; 1) to glorify God 2) in every area that includes the little things, eating, drinking. In other words, our atotal purpose is to glorify God. It means to please God and to enjoy God Himself. So the Christian knows how to please God

through his life, and how to enjoy God in his thinking. He does not want to enjoy the other, secular pleasure, money, sexual immorality and worldly business etc. So he enjoys to read the Scripture, to meditate the Word of God and to pray to God and to say the gospel to the other etc. Why? Because he finds the wonderful world only in Christ. And also he wants to enjoy God and His truth until at least a thing because he sees the abundant grace world. So he wants to be faithful even to small things and he observes the marvelous love and grace in all creatures.

Reformed Christian is not shaken at the main purpose in his life and cannot be changed into the other purpose. So though he lives in the earth, he stands firmly on the foundation of the heaven in Christ. This personal view should rule over every area of the Christian. Reformed faith has so permanent power to make us have a blessed life in the confused world. So his life is so operative and faithful.

Considering Reformed Faith (7)

Reformed faith has the sense of strong responsibility.

While I serve the college and seminary students and my pastoral ministry in Cambodia, I find the feature that does not take responsibility at their related matters because of some reasons; complex or, complaint etc.

Moreover the case of Christian they also hate to take responsibility. Actually such attitude comes out of weak faith. The weak faith comes out of standing on the human teaching, not on the sound Word. Colossian 2:6-7 says, “Therefore, as you received Christ Jesus the Lord, so walk in him, rooted and built up in him and established in the faith, just as you were taught, abounding in thanksgiving.”

As he receives the Word of God he should stand firm on it without shaking by the influence of the other teaching. Then we

have strong responsibility. When we stand firm on the Word of God, it shall be pure, faithful and powerful. So his responsibility is not a burden but the delight and divine hedonism.

True faith and true repentance and true devotion has strong responsibility. As we know, the criminal on the right side of cross claimed, “But the other rebuked him, saying, “Do you not fear God, since you are under the same sentence of condemnation? And we indeed justly, for we are receiving the due reward of our deeds; but this man has done nothing wrong. (Lk 23:40-41)”

At the first time two criminals mocked Jesus on the cross. In the processing time momentarily a certain ne was repented because of illumination of Holy Spirit to know the reality of Jesus. It made his heart repented his sin. Then he claimed “ And we indeed justly, for we are receiving the due reward of our deeds;“ It points the consciousness of responsibility of his wrong deed

before the reality of Jesus as the son of God. He received the revelation through the power of Holy Spirit out of God. (Mt 11: 27) No one can know who Jesus is except the work of Holy Spirit. (I Cor 12:3).

In other word, nobody feel the responsibility except the work of Holy Spirit because he do not know the identity of Jesus Christ.

Although Cambodian Christians accepted the gospel truly I think that majority is inclined to Evangelism trends. It is a wonderful issue. But I check up their weak responsibility in his life and in the relationship. Naturally the biblical life, that reformed Christian life pursue the strong responsibility to establish the kingdom of God at every areas of the life. At the meaning Cambodia church learn the reformed theology and reformed faith.

Considering Reformed faith (8)

Reformed faith loves faithfulness.

Faithfulness is translated for Smatrung in Khmer, Although the term was come out of human philosophy, they loves the word, honest, sincerity etc.

But reformed Theology loves faithfulness in thought, in the activities and in the world value view because it is the foundation of every good things. The summary of God will is expressed by the laws and Ten Commandments, which consists of three elements, righteousness, mercy and faithfulness. Then faithfulness is the root of the other, righteousness and mercy. (Mt 23:23) if we have no faithfulness in our faith and our life, it is false. Paul remarks that the fruit of light consists of goodness, righteousness and faithfulness. Here faithfulness is the source of two things, righteousness and mercy. Without

faithfulness no salvation, no good life, and no mercy. Always every Christian virtue should be depended on faithfulness.

More important thing is to know the source of faithfulness. What is the faithfulness? Of course it is faithful God and faithful Word, the Scripture. So reformed faith concentrate on God and His word. Although we cannot see the invisible God, we want to know the Word of God, the Scripture honestly because only his word is faithful truth. When we trust the Scripture in our good conscience, we know the truth and experience true freedom.

Reformed faith wants to follow faithfulness and reformed Christian love to listen to the man of faithfulness. Why? Because he knows that it is his life. So as he treats the Scripture, he takes it very sincerely like Brea Christian did so. “Now these Jews were more noble than those in Thessalonica; they received

the word with all eagerness, examining the Scriptures daily to see if these things were so. (Acts 11:17)”

Considering Reformed faith (9)

Reformed faith loves Biblical creative thought.

God is the creator who made all things out of nothing. Basically the man was made the creative being for he imitated God. But it is conditional because he is being who should be depended on God, but not the autonomous being, a humanist (self-centric being). Without depending on God, his creative thought is inclined to rebel against the throne of God, Satan did.(Is 14: 12-13 , Jud 1: 6). So we know that the essence of sin is autonomous. So true creative thought, activities comes out of the Scripture, the word of God. But although we accept scientific matters, we want to be controlled by the Word of God because the heavily

world control all things. So we admit that in the world, true creation does not exist and true invention does not exist.

Reformed faith accepts this presupposition but love to have creative thought in every areas, personal life, family, society, economy and culture etc. So he starts to take the creative thinking out of the thought that was depended on the revelation (the Word of God =the Scriptures). Actually as we meditate the passage of the Scripture in our heart, we can find creative thought in the light of the Word of God. It is able to be called for the illumination of Holy Spirit.(Eph 1:18) Under the light we can make sure our present situation rightly and find the key of solution in our lives. I call for this one as truth or, creative thought or, applied truth. When we find the truth naturally we loves it, possess it and use it in our present states. Then our heart shall be bright delight and hopeful passion and vision and

dream in the future. So at any situation he has many ways to solve the issues like Paul confessed in Phillipian 4:12-13.

As we know, the essence of Buddhism has no the philosophy of the creation out of nothing because it is rooted in human philosophy. From them we cannot expect creative thought, creative method. But the Christianity has creative thought because he depends on the Creator God and creative word of God, the Scripture. Although many trouble situations are happened, they enjoy the preset situation for creative vision in Christ. Reformed faith is so creative in the contemporary day to establish the kingdom of God on the nihilism, like the stream of water, of Cambodia.

